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TV 드라마의 여성 결혼이민자 재현에 관한 연구

: SBS <황금신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200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김 주 미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TV 드라마의 여성 결혼이민자 재현에 관한 연구

: SBS <황금신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지도교수 한혜경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문방송학과

김 주 미

김주미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2월 일



주심 문학박사 오 창 호 (인)

위원 철학박사 김 무 규 (인)

위원 정치학박사 한 혜 경 (인)

-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3
3.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7
1.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실	7
1)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념과 현황	7
2)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	10
2. 텔레비전 드라마의 정체성 재현과 그 의미	12
1) 텔레비전의 정체성 재현	12
2) 텔레비전 드라마의 사회적 의미	15
3. 기호학과 신화	17
1) 소쉬르의 기호학	17
2) 바르트의 신화론	21
4. 선행연구 고찰	25
1)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국여성상에 관한 연구	25
2) 텔레비전 속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	32
III. 연구방법	37
1. 연구대상 드라마	37
2. 연구방법	38

IV. 연구결과	41
1. <황금신부>의 통합체 분석	41
1) 서사구조	41
2) 드라마에 나타난 갈등구조	43
(1) 부부간 갈등	43
(2) 친족간 갈등	46
(3) 세대간 갈등	49
(4) 또래여성간 갈등	51
3) 통합체 분석 결과 나타난 <황금신부> 이야기 구조의 의미	55
2. <황금신부>의 계열체 분석	57
1) 주요 등장인물	57
2) 여성등장인물과 남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60
(1) 여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60
(2) 남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63
(3)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65
3) 여성등장인물과 남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66
(1) 여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66
(2) 남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69
(3)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71
4) 계열체 분석 결과 나타난 <황금신부>의 여성결혼이민자상	72
3. <황금신부> 신화분석	74
1) 드라마 <황금신부>와 기존 신화와의 차별성	74
2) 드라마 <황금신부>와 기존 신화와의 유사성	78
3) 드라마 <황금신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신화가 갖는 의미	83

V. 결론	86
1. 결론	86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91

참고문헌



- 표 목차 -

<표 1> 국제결혼추이: 1990-2006	8
<표 2> 기호학을 이용해 드라마 속 여성상을 연구한 주요 논문	29
<표 3> 미디어 및 공론장에서의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재현의 유형	35
<표 4>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구조	46
<표 5>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시대 식구들의 갈등구조	48
<표 6> 여성결혼이민자와 구세대 한국여성과의 갈등구조	51
<표 7> 여성결혼이민자와 또래 한국여성과의 갈등구조	54
<표 8>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및 배경	58
<표 9> 여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62
<표 10> 남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64
<표 11> 여성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65
<표 12> 여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68
<표 13> 남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70
<표 14> 여성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71
<표 15> 기존 신화와의 유사성	77
<표 16> 기존 신화와의 차별성	81
<표 17> 여성 결혼이민자 기존 신화와 드라마 <황금신부>의 신화적 의미	84
<표 18> 분석결과	89

-그림 목차-

<그림 1> 소쉬르의 의미 요소들	18
<그림 2> 바르트 의미 작용의 2단계	23
<그림 3> 드라마 <황금신부>의 서사구조	42



A Study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presentation in TV Drama
: A Semiological Analysis of SBS <The Golden Bride>

Kim, Ju-Mi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t's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by media, as those immigrants have emerged as a new group of people who are incorporated into Korean society. They are a minority in Korean society, and just a very small number of Koreans meet them in person. Under the circumstances, media could be said to play a fairl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way of looking 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TV drama, on which there hasn't been dynamic discussion in association with the various roles of media. TV viewers who watch a drama describing a female marriage immigrant are likely to identify that character with real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y may meet, and the way they look at them is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drama. That was why this study focused on TV drama as a medium of represent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SBS's weekend drama entitled 'The Golden Bride' was selected in this study, which was on the air for six months from June 2007. Since

a female marriage immigrant was the main character who determined the flow of the drama, this researcher expect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take a careful look at how the drama represented the external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 from various angles. Syntagmatic analysis and paradigmatic analysis, which were semiological analyses, were utilized to check into how the TV drama described international marriage,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 and her interaction with Korean family members. In addition, a myth analysis was carried out to shed light on the implications of the semiological analyses results and the ideology of the drama.

As a result, the typical, patriarchal ideology was still prevailing in the drama that portrayed a female marriage immigrant, though the drama was viewed as a mirror of social changes in large part. The drama was different from news, documentary or entertainment programs in the way of depicting a female marriage immigrant. The latter portrayed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inly as marginal women who should be protected, whereas the former represented the female immigrants as the so-called mysterious superwoman who was good at household chores and an excellent performer at work.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earlier studies, and the fact justifie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Key words: TV drama, female marriage immigrant, representation, semiology, myth.

I. 서론

1. 문제제기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에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실제와는 다른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며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굳이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적이 없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여성 배우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에서 이제 한국이 다인종·다민족 시대를 맞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2007년 결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총 혼인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11.1%에 달하는 3만8491건이다. 그 중에서 ‘한국인 남자·외국인 여자’의 결혼 건수는 2002년, 1만 1017건이던 것이 2년 뒤인 2004년에는 2만559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20대 한국인 5명 중 1명, 신생아 중 3분의 1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추산된다.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타이틀’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상적으로 다문화가정은 이렇듯 빠르게,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아직 이러한 현상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현상적으로 다민족국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2005년 무렵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미디어 및 학계를 포함하

는 공론장, 그리고 현장의 지원단체들을 망라하는 다양한 주제들에 의해
가히 ‘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오경석, 2007). 특히, 한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제결혼의
모습은 지구화로 인한 이주 현상의 한 맥락이자 여성의 이주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은 전지구적 규모의 인구이동과 분산
거주현상의 일상화를 초래하면서 사회학적 논의와 문화이론의 맥락에서,
그리고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문화이론에서 디아스포라¹⁾ 논의를 촉진시키
고 있다(이수자, 2004).

이러한 논의에 발맞추어,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도 한국 사회에 새로 편입
하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재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정책이나 법, 제
도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어 오고 있는데, 미디어 분야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의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
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으
며, 실제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가까이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계층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미디어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중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수용자들에게 어떤 현
상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게 해주는 척도를 제공하며 현실 세계의 보편
적인 인식, 즉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
할을 한다. 특히 ‘일상적인 친숙함’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신화를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텔레비전의 사회화 기
능은 더욱 커지고 있다(안정아, 1998). 이처럼 텔레비전의 영상적 재현뿐만
아니라 모든 재현은 개념을 조직하고, 모으고, 배열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1) 처음에는 유태인의 강제이주와 망명지의 고통, 그로 인한 집합적 상흔과 모국에의 갈망
을 의미했다. 하지만 사회학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먼 곳으로의 이민과 식민화’를 뜻한
다(박명규, 2003).

방식에 관여하며 개념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확립하는데 개입한다(Hall, 1997). 따라서 재현은 반영적인 역할보다 구성적인 역할을 하며 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 권리,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경숙, 2006).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범주에서 다뤄지는 여성 결혼이민자 관련 논의 중에서, 비교적 그 논의가 활발치 못했던 텔레비전 드라마의 여성 결혼이민자 재현에 관해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픽션물인 텔레비전 드라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처한 현실을 그리는데 있어,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어떠한 구조적 방식과 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현실 세계의 보편적인 인식, 즉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드라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봄으로써 드라마가 사회문제를 재현해내는 방식과 그에 따른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2005년 이후 방송매체들은 시사, 교양, 오락, 드라마의 장르를 넘나들며, 여성 결혼이민자 등을 재현해내어 문화상품화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의 재현은 현실의 여러 측면 중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주변화 혹은 배제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양정혜, 2007). 아파두라이(Appadurai, A., 1996) 역시, 세계의 시민들이 미디어의 이미지를 복합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상상하는데 사용하며, 이러한 미디어 이미지는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리얼리티(strips of reality)’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듯, 매스미디어에서도 이들을 재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했다. 나아가, 텔레비전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습에 어떠한 숨은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드라마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와 동시적인 시간 속에 살아 움직이므로 그들이 엮어 가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우리는 몰입하게 된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는 다양한 인물들과 배경들을 근간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게 된다. 이런 현실감과 친숙감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그 세계로 들어가 텔레비전 드라마의 의미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백선기, 2001). 다시 말해, 여성 결혼이민자가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와 현실에서 만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동일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재현하는 드라마가 생산하는 의미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러브 인 아시아> 등의 오락 프로그램과 시사 다큐멘터리 등에서 재현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데에 반해,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적이 없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의 재현방식을 기호학적 분석방법과 신화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려 한다.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분석대상인 텍스트 이면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신화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이지영, 1993). 여기에 신화분석을 더한다면, 드라마 속에 용해되어 있는 신화를 발견함으로써, 사회의 신화 또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찾아서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될 드라마는, 2007년 이후, KBS, SBS,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SBS <황금신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인공인 SBS <황금신부>는 2007년 6월

부터 방송된 주말 드라마로, 6개월간 10%에서 30%대에 이르는 시청률을 보인 인기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베트남 국적을 가진 라이파이한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후 겪는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엮어내고 있다.

분석대상이 되는 드라마 <황금신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인공이 되어 극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만큼,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을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라마의 서사 구조와 갈등 구조를 파악하여 여성 결혼이민자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정형화된 전개 방식을 알아보고 나아가, 드라마 전개에 있어 범주화되는 집단들의 이항대립적 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소재의 드라마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위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선별하여, 이 드라마가 가지는 이야기 구조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습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해볼 것이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편적 인식 속에 숨어있는 신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드라마 <황금신부>의 이야기 구조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1-1. 드라마 <황금신부>는 어떠한 서사구조로 이루어졌는가?

1-2. 드라마 <황금신부>의 서사구조 속에 표현된 갈등구조는 어떠한가, 갈등을 통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재현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상은 무엇인가?

2-1.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재현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상은 한국 여성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2-2.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재현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상은 한국인 남편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재현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신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3-1.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재현된 여성 결혼이민자의 의미는 기존 신화와 어떤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가?

3-2.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재현된 여성 결혼이민자의 의미는 기존 신화와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여성 결혼이민자의 현실

1)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념과 현황

1990년대 들어,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노동 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주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노동력 수출 국가였던 것이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 또한 아시아의 주요한 이주노동력 유입 국가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8년 이후 국내 이주자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2008년 5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규모가 90만 1341명으로 일년전보다 23.3% 증가했으며, 전체 주민등록 인구(4935만 5153명)의 1.8%에 이른다(통계청, 2007).

이주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본 논문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이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결혼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지만 90년대 이후,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제결혼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2007년 결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총 혼인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11.1%에 달하는 3만8491건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여성·한국인 남성’의 결혼 건수는 2002년에는 1만1017건이었지만 2004년에는 2만5594건, 2006년에는 3만208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20대 한국인 5명 중 1명, 신생아 중 3분의 1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추산된다.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타이틀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표 1> 국제결혼추이: 1990-2006

단위: 건, %

연도	전체결혼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한국인남성		외국인남성+ 한국인여성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72	5,10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375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2	30,208	11.02	9,482	0.9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그렇다면 1990년대 갑자기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관행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이농현상 때문에 농촌 총각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몇몇 농촌 총각들의 자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펼쳤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조선족 여성을 시작으로 점점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여성들을 ‘수입’하는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이민자 현상이 단순히 농촌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결혼 이민자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기도 하는데, 도농 지역 간 차이를 불문하고 배우자인 남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낮다는 것이 공통적이다(김희정, 2007)

한국 내에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외국의 출신자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은 흔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개념화되기도 하고 ‘외국인 주부’, ‘이주여성’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2006년 4월 정부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성 결혼이민자’ 개념을 채택하였다(김이선 외, 2006).

사실, ‘결혼이민자’라는 용어 자체는 2005년부터 정부 공식 문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는 결혼 이민자와 여성이주노동자를 통칭하여 여성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한국 정부가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를 여성외국인근로자와 별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결혼 이민자를 특별 정책 대상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이민자들은 일반 한국 여성과도, 여성이주노동자와도 다른 정책 집단이 된 것이다(김희정, 2007). 본 논문에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개념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결혼 이주여성’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2007년 5월 현재,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75,467명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2007). 구체적으로 지난 200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49.8%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2.8%, 일본 5.7%, 필리핀 5.3%, 몽골 2.6%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 중 중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개도국의 여성들로 한국 남성과 결혼 후 입국,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

1990년대 들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노동 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주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주(migration)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주에 있어 20세 말에 나타난 주요 경향이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²⁾이다.

안현주(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의 여성화’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하나는 여성의 빈곤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경을 넘어 타 지역에서 이주 노동을 감행하고 있는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취급되던 돌봄 노동, 즉 가사, 육아, 환자 봉양 등의 재생산 노동과 식당, 관광지, 유흥업소에서의 서비스 노동 영역, 그리고 국제결혼에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눈여겨 볼 것은, 한국사회 내부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특히 저임금 국가 출신 여성과의 결혼은 매매혼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문헌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 중 몇몇 연구는, 매매혼적 성격을 띤 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들은 종종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 받으며 나아가 가정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여성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의 국제적 편차에 직면하면서 타자화 과정을 경험한다(이수자, 2004).

양정혜(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출신국이 빈곤하고, 자국 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많다는 점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 출신의 교육받지 못한 집단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존

2)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또는 feminized migration)는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면서 동시에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유지되기 힘든 특정한 성별 노동분업이 보다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이주를 통해 지속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민정 외, 2006).

재한다고 지적한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결혼은 돈을 받기 위한 매매혼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취업과 같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는 사회적 불신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적응과 정착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 국경을 넘는 이동 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설동훈(2005)과 이윤애(2005)의 연구에서는 국적문제와 폭력 등 인권 침해, 경제적 빈곤 등과 더불어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고립 등을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해있는 주요한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결혼관계,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 언어와 생활방식의 차이,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인 것으로 보고해왔다.

이와 같이, 한국 내에서 국제결혼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디어는 이들의 문제를 소수자의 이슈로 간주하여 중심적인 이슈로 다루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결혼이 대규모의 결혼이주자를 양산하고 다문화가족의 출현을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은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주변부 남성의 일이며 이들의 배우자로 한국에 오는 여성들 또한 주변부 여성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김현미, 2006).

따라서 아시아 국가에서 국제결혼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행위주체성과 다면적 삶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 여성들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매매혼이나 정부 주도의 정책형 결혼으로 한국 사회의 파행적 구조

속에 이루어진 현상이다. 일자리를 찾아 이주를 계획하거나 경제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으로의 결혼 이민이 새로운 삶과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한 선택으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결혼은 부부간의 친밀성에 근거한 ‘낭만적’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고국의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한건수, 200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미디어, 그중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가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재현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경을 넘어 낯선 나라로 이산을 경험한 이들이 한국 사회가 규정하는 객체로서 어떻게 의미 지워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텔레비전 드라마의 정체성 재현과 그 의미

1) 텔레비전의 정체성 재현

‘정체성’은 쉽게 말해 ‘밖으로부터 정의되는 나’이다.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에서의 역할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준거 삼는 것으로도 짐작 가능하다. 한 가정의 ‘가장’, 사회에서의 ‘중산층’ 등과 같은 개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 개념으로써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주체와 대상간의 관계 설정을 위한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송병찬, 2006). 홀(Hall, 1994)은, 정체성이란 이미 완성되거나 확립되어 있는 그 어떤 요소가 아니며 문화적 재현 속에서 구성되고 항상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결코 완성되지 않은 산물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주류사회의 문화적 코드와 가치체계로 재현하는 것은 이들

여성이 스스로를 타자화 시켜 바라보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타자의 이미지는 영화·TV·사진·그림·광고·문학·학술서적·신문과 잡지 등을 매개로 반복해 재현되고 당연시된다. 이러한 재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적이라고 간주되거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양정혜, 2007).

이렇게 문화를 생산, 소비, 재현, 정체성, 규제 등의 순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정체성은 재현국면과 상호작용한다. 여기서 재현은 우리를 주체로 위치 지우는 의미화 실천과 상징체계를 포함하고 문화적 과정으로써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재현체계를 통해 과거,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소망에 비추어 나는 누구인가를 그려낼 수 있다(이정숙, 2006).

여기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재현’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재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재현을 ‘상징이나 이미지’로, 둘째는 ‘무언가를 눈이나 마음에 제시하는 과정’으로 본다. 여기에서 상징이나 이미지의 의미는 특히 중요하다. 재현은 어떤 것을 다시(re) 보여주거나(present) 나타내는(stand for) 행위다. 윌리엄스가 설명하는 것처럼 ‘정확한 복제(accurate reproduction)’라는 개념이 발전되면서 재현의 의미는 복잡해졌다. 이를테면 사진은 카메라 앞에 놓인 대상을 재현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의 정확한 복제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하지만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내거나 변조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Baldwin, 2000/2008).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재현 수단은 매스 미디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매스 미디어는 의미의 생산과 소비,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써 사회적 정체성 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튜어트 홀(Hall, 1997)은 이러한 이미지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해 ‘재현의 정치(a politics of representation)’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화 실천으로써의 ‘스테레오 타입화(Stereotyping)’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송병찬, 2006). 홀(Hall, 1997)은 특히,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다시 말해 특정한 재현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주목했다. 그것은 낙인찍고(mark), 분류하고(classify), 지명하는(assign) 등의 재현적 실천을 통한 상징 권력의 행사를 포함한다. 스테레오 타입화(Stereotyping)는 그러한 상징적 폭력이 행사되는 주요한 요소이다. 스테레오 타입화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차이를 축소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고, 고정시킨다. 둘째, 단절과 배제를 통해 상징적 범주, 즉 사회적, 상징적 질서를 확고하게 만든다. 셋째, 자민족 중심주의(cthnocentrism)와 같이 자신의 문화적 기준을 다른 사람의 그것에 적용시키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이를 통해, 스테레오 타입화는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타자(other)’를 구성한다(송병찬, 2006).

이처럼 재현은 반영적인 역할보다 구성적인 역할을 하며 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 권리,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경숙,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이 담고 있는 세계가 실재를 반영한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에 대해, 피스크(Fiske, 1987)는 텔레비전이 현실을 생산하는 관습화된 형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텔레비전이 특정한 영상기법이나 서사양식을 채택하고, 이러한 텔레비전 영상기법 또한 일정한 재현체계 속에서 사회문화적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주목할 것은, 미디어가 여성 결혼이민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어떻게 재현해내는가 하는 점이다. 미디어는 주변집단을 종종 우화적으로 재현하는데 주변화 된 집단에 대한 재현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우화적 의미가 주변부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재현된 소수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때로는 특정 소수집단뿐 아니라 모든 소수집단 구성원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미국 드라마에서 중국인 배우가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모든 아시아권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타자로서 캐스팅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중국, 한국, 일본의 구별은 그다지 중요치 않고 중국인은 서양에 대척점을 형성하는 하나의 집합적 타자로서의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것이 되고 만다(양정혜, 2007). 홀(Hall, 1997) 역시, 정체성의 드러냄과 구성이 재현체계를 통해 실천될 때 낯선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

적 재현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왜곡을 동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의 재현은 현실의 여러 측면 중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주변화 혹은 배제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양정혜, 2007).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미디어,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논의하려는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이 갖는 여러 측면 중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무엇이 주변화되어 드라마 속에 드러나는가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2) 텔레비전 드라마의 사회적 의미

텔레비전 영상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상 세계와의 친근함’이다. 이러한 일상성과 친근함을 무기로 한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와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별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오명환, 1994).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텔레비전은 영화와는 달리, 시청자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또는 시청자가 속한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진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현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다양한 의미와 즐거움을 경험하며,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에게 의미있는 현실을 구성한다(정현주, 1998).

피스크(Fiske, 1990/2001)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자연화한다고 말했다. 이는 텔레비전이 외부 세계 또는 현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화 시켜주며, 또 그 형상을 현실과 동일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텔레비전 텍스트에는 그것이 현실 세계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내재해 있다(백선기, 2001).

하용출(2001)은 현대의 문화적 현상들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가장 대중적인 것이 텔레비전이며, 이는 친밀성과 공동성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본다. 텔레비전 장르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는 텔레비전에 대한 공적 담론의 핵심을 이루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시청률의 구조와 프라임 타임 프로그램 편성의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는 자신이 가정에서 혼자 또는 가족끼리 사적으로 소비하지만, 그것은 수천만 시청자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공간을 형성한다. 드라마가 유별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드라마의 재현 내용에 시청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드라마는 대부분 연속극 형식으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적 반응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본래의 내용까지 변형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허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비평의 태도는 드라마에 사실적인 기준을 부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시청자의 드라마 시청동기조사의 결과도 실제 시청자들의 드라마 시청동기 중 중요한 것이 현실도피나 오락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과 확인 동기임을 밝혀 준다(하용출, 2001).

어떤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에서든 부정적인 태도에서든 그 드라마가 다루는 내용이 다른 사회 성원들에게 강한 소구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 드라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통로, 그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내용을 매개하는 장소로 인식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의 한 단면을 기계적으로 재생할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을 반영할 수도,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할 수도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특히 현실의 허구적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각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정준영, 1998).

이와 같이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일상성, 현실성, 시청자와의 동반성을 추구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드라마의 의미는 사회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과정을 거쳐 인공적으로 구축된 텍스트로 친숙한 형태로 의

미를 자연화시킨 일련의 조작된 작업인 것이다. 이렇듯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고 현실의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허구의 세계를 현실처럼 재연하면서 자연화된 드라마는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된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자연화된 친숙한 코드의 일상성이 강조된 텔레비전 영상의 특성을 반영하게 되며,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드라마 장르 역시 이런 텔레비전 영상의 일상성의 특징을 공유하게 한다(백선기, 2001).

논의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 특유의 친숙하고 자연스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자신 혹은 타인의 모습을 깊이있게 분석하는 일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3. 기호학과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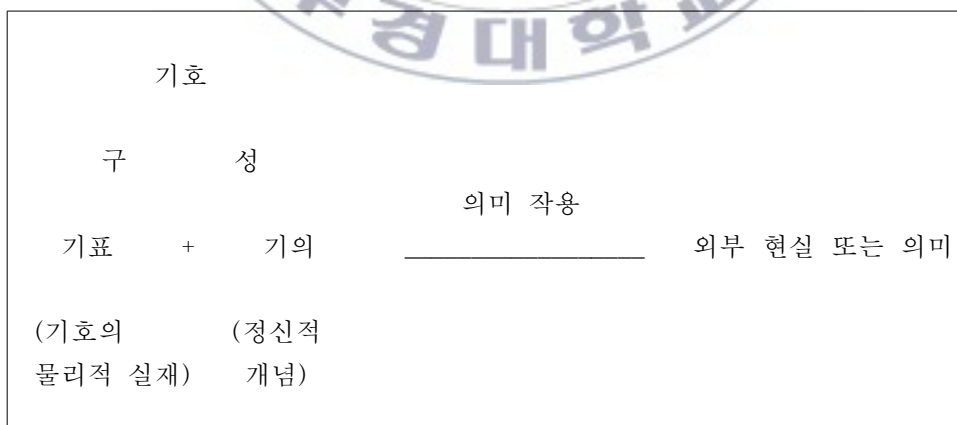
1) 소쉬르의 기호학

기호학(semiotics 혹은 semiology)은 기호와 기호의 작용방식에 대한 연구를 일컫는다. 따라서 기호학은 일차적으로 텍스트에 주안점을 두며 그 의미를 해석해내기 위한 학문이다(윤정주, 2000). 기호학은 20세기 초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미국의 찰스 퍼스(Charles S Peirce)에 의해서 각기 서로 다른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출현하였으나, 소비 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호학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언어학에서 출발, 언어기호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해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소쉬르의 기호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자 한다.

우리는 언어의 기능에 대해 상식적으로 언어가 사물을 명명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쉬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언어란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다. 언어는 이미 조직되고 정리된 현실(reality)에 대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의 역할은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복잡하다. 언어의 기능은 현실을 조직하고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그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Turner, 1992/1999).

소쉬르에게 기호란 의미를 지닌 물리적인 대상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기표는 종이 위의 활자나 공기상의 음파와 같이 우리가 지각하는 기호의 이미지다. 반면, 기의는 기호가 가리키는 정신적인 개념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한 문화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된다(Fiske, 1990/2001). 소쉬르의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1> 소쉬르의 의미 요소들



이처럼, 소쉬르는 기호의 자의적인 속성이야말로 인간 언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 사이의 관습이나 규칙, 또는 동의에 따라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기호란 단순한 지시대상에 대한 지칭이나 기호 자체인 ‘기표’와, 기호가 일차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기의’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기의는 사회 내의 제반 관계 및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의들을 낳게 되고 이것들의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함축 의미들을 내포하게 된다. (백선거, 1995).

기호의 자의적인 속성에 주목한 소쉬르 이론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언어와 문화를 관계 짓고 있다는 것이다. 소쉬르는 언어의 작용과 의미를 생산하는 다른 체계들의 작용 간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괄하여 ‘의미 체계(signifying system)’로 보았다. 이러한 유사성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채택되었다(Turner, 1992/1999). 소쉬르는 언어 체계를 구성하는 원리들을 다른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들에도 적용시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문화 체계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준 것이다.

문화적 생산물, 즉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언어를 통한 ‘재현’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재현과 의미 생산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Turner, 1992/1999). 소쉬르는 그것이 기호학이라고 보았다. 소쉬르의 기호학 개념 중 계열체(paradigm)와 통합체(syntagm)는 기호의 재현과 의미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계열체란 특정 기호가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잠재적인 기호의 다발을 의미한다. 도로 표지에 사용될 수 있는 직각형, 원, 삼각형 등의 일련의 도형다발은 이 점에서 하나의 계열체를 형성하며, 상징의 다발도 마찬가지로 원리로 계열체가 된다. 반면, 통합체란 선택된 기호가 결합되어 구성된 메시지이다. 도로 표지는 선택된 상징과 선택된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통합체이다. 언어의 경우 어휘는 계열체이고 문장은 통합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렇듯 모든 메시지는 (계열체로부터의) 선택과 (통합체로의) 결합을 수반한다(Fiske, 1990/2001).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은 텍스트 차원의 분석에 있어서 유용하다. 에드거와 세즈윅(Edgar & Sedgwick, 2002)에 따르면, 계열체는 메시지가 구성되는 의미있는 단위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계열체로부터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를 구성해내는 기호들의 조합이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체는 기호의 배열이고, 계열체는 기호의 집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체 분석이 텍스트 내 사건의 전개에 초점을 맞춘다면 계열체 분석은 주어진 텍스트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숨어있는 대립적 개념들을 찾아낸다(김경용, 1994). 결국, 모든 텍스트는 사건들이 전개되는 순서에 의해, 그리고 텍스트 속에서 나타나고 발견되어지는 대립적인 구조라는 두 가지 차원의 방식에서 그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텍스트로써 텔레비전 드라마가 지니는 대표적인 특성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하나의 기호론적 서사구조라는 점이다. 즉, 텔레비전 드라마는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서사적 코드와 영상언어적 코드가 결합해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기호구조로 이루어진 텍스트로 전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각은 구조주의 기호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현상은 어떤 본질을 가진 물질적인 대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로 구성되는 의미를 가진 대상이나 사건으로 정의되며, 이항대립이라는 관계망을 통해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텍스트의 의미 생산은 텍스트를 이루는 고립된 요소들의 내재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이루는 각 요소들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이지영, 1993).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기호학적 분석방법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텔레비전이 사용하는 상징적 기호를 우리가 인식함과 동시에, 텍스트의 개별적 차원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바르트의 신화론

우리는 기호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형태로서의 기표와 내적 개념으로서의 기의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관습적인 분류 체계, 즉 문자적인 의미와 연상적인 의미, 또는 외연적 의미와 내연적 의미가 관련되어 있다. 이 분류 체계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외연적인) 의미와 그것이 좀 더 확대된 사회적 차원(내연적 의미)을 갖게 되는데 단어를 둘러싼 연상들이 누적됨에 따라 외연적 의미가 확대된다(Turner, 1992/1999).

소쉬르의 제자인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기호학으로 발전 시켰다. 그는 저서 <신화론 Mythologies>(1957)에서 현대 서구 사회의 영화, 스포츠, 식습관 등에 나타나는 기호와 관습을 분석하는 데 소쉬르의 모델을 적용했다. 바르트는 특히, 문화적 결합과 사회 지식이 기의에 결부되는 방식에 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결부를 '신화(Myth)'라 부르고 있다.

'신화(Myth)'는 글자 그대로 신(God)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Mythos에서 연유된 것이다. 신화의 가장 단순하고 전형적인 양태로 신이나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는 그 같은 신이나 신성한 존재가 존중될 수 있는 문화나 사회적 제반 관계 및 기능을 담아내고 있다. 신화는 사회의 특정한 제례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사회내의 법, 금기, 권력 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계승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특정한 사회구조 및 양태를 띠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신화란 특정한 사안이나 사건이 그것과 관련있는 주체와 더불어 여러 가지 형태로 가감이 되어 '이야기로 만들어져' 전달되는 것이다(백선기, 1998).

'신화'는 대중문화에 기호학적 방법론을 적용시킨 가장 의미있는 시도를 보인다(백선기, 1998). 바르트는 이데올로기가 텍스트나 인간의 일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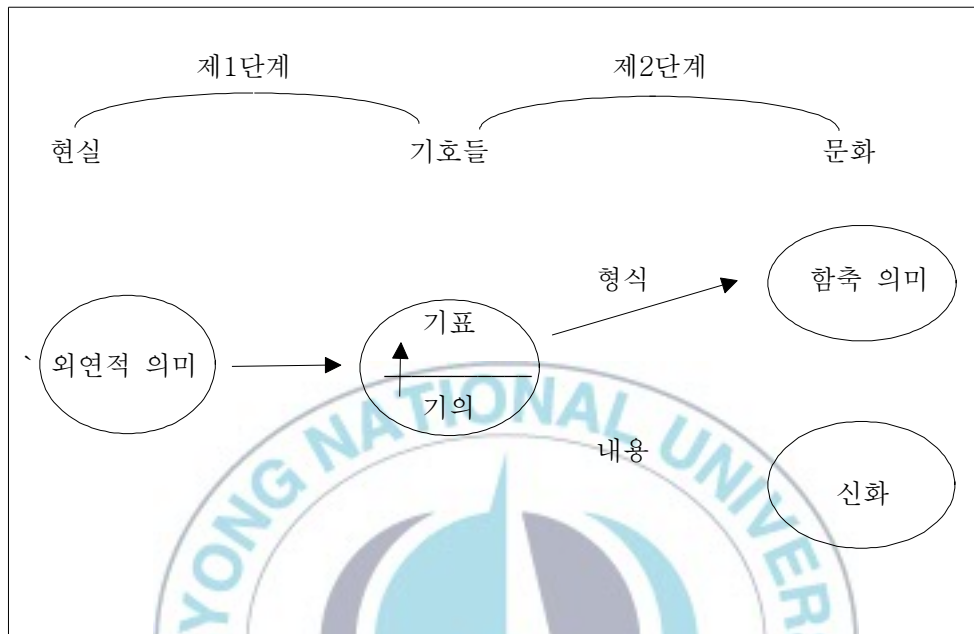
실천행위에 의해서 전해질 수 있는 이차적, 혹은 무의식적인 의미의 단계에까지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화론 Mythologies>에서 소쉬르로부터 영향받은 기호학적인 방법을 통해 대중문화의 숨은 이데올로기를 읽어낸다. 바르트 이론의 핵심은 의미의 제2단계인 의미 작용에 있다.

의미 작용의 1단계는 소쉬르가 연구한 것으로, 한 기호 내에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나타내며 기호가 표상하는 외부 세계인 지시대상과 기호와의 관계를 표현한다. 바르트는 이러한 제1단계를 외연적 의미라고 불렀다. 외연적 의미는 기호의 상식적이면서 명백한 의미를 말한다(Fiske, 1990/2001). 바르트는 의미 작용의 1단계에서의 기표/기의의 연합이 의미작용의 2단계에서 기표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 작용의 2단계 과정을 바르트는 함축 의미라고 부른다.

함축 의미란 의미 작용의 제2단계에서 기호가 작용하는 세 가지 방식 중의 하나를 기술하기 위해서 바르트가 사용한 용어이다. 함축 의미는 기호가 사용자의 느낌이나 정서 혹은 사용자의 문화적 가치와 결합하여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의미가 주관적인 영역 혹은 최소한 상호 주관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며 해석소가 대상이나 기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해석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도 일어난다(Fiske, 1990/2001).

제2단계에서 기호가 작용하는 바르트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두 번째는 신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르트는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믿음이나 가치, 태도 등을 '신화'라고 불렀다. 신화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의 대중문화 안에는 그러한 신화들이 용해되어 있다고 보고 대중문화 분석의 목표를 신화를 찾아내는 데 두고 있다(백선기, 2001) 이처럼 함축 의미를 기표의 2단계에서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신화는 기의의 2단계에서의 의미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바르트 의미 작용의 2단계



-출처 : Fiske, Jonh(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강태완·김선남 역(2001).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와 같은 의미작용의 2단계를 분석함으로써, 바르트는 우리가 “자명한 것, 혹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남용을 파헤치고자 하였다. 그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신화의 이데올로기를 들추어내어, 그 속에 은폐된 부르주아 규범을 타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호학적 체계로 설명한다면, 개개의 현상이나 사건은 각각 하나의 기표로서 하나의 기의를 갖지만, 그 기의는 조작된 것으로서 그것을 파헤쳐 감춰진 또 다른 기의를 찾아내는 전략이다(원승룡·김종현, 2001).

신화는 역사에서 자연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절약한다. 신화는 인간 행위들의 복잡성을 제거하며, 그 행위들에 단순한 본질을 부여한다. 그

리고 신화는 모든 변증법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서 신화는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인 가시성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제 신화는 모순이 없는 세계를 조작한다. 왜냐하면 신화가 만들어낸 세계는 깊이를 지니지 않으며 자명성 안에 펼쳐진 세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화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세계를 행복하게 한다. 사물들은 완전히 홀로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Barthes, 1957/1995).

예를 들어, 여성이 본질적으로 양육과 가사에 남성보다 더 적합하다는 신화가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의 자연적인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남성을 보살피는 것이 되는 반면 남성 역시 ‘자연스럽게’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을 근거로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 단위인 가정이 구성된다. 이처럼 신화는 그 의미를 자연의 일부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기원을 위장하고 스스로를 보편화하여 만고불변의 공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남녀에 관한 신화 역시 남성과 여성의 이해 관계를 동등하게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그 정치적인 효과를 은폐하고 있다(Fiske, 1990/2001). 이렇듯 원시적인 신화는 삶과 죽음, 인간과 신, 선과 악 등에 관한 이야기이고, 현대의 신화들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가족, 성공 등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Fiske, 1990/2001).

그렇다면 현대의 신화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현대의 신화가 구축되고 변형되는 지점으로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들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이데올로기/신화에 일정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힘이다. ‘사회적 현실’에 대한 합법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동시에 이의 한계를 설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의 변화를 원재료로 삼으면서도 이를 기존의 지배질서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사회 보수화 역할을 이행한다(김응숙, 1995).

또한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수용자들에게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게 해주는 척도를 제공하며 현실 세계의 보편적인 인식, 즉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일상적인 친숙함’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신화를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텔레비전의 사회화 기능은 더욱 커지고 있다(안정아, 1998).

신화는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중문화 속에 그런 신화들이 담겨 있으므로,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텍스트 이면에 존재하는 신화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찾아내어 그 사회를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라 하겠다.

4. 선행연구 고찰

1) 텔레비전 드라마와 한국여성상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 대중매체 속에 묘사되는 여성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에 민주, 민중 운동의 성장 속에서 여성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이에 고무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상에 관한 연구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양적 방법의 내용분석 연구와 둘째,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정신분석학이나 기호학을 이용한 연구들이다. 초기연구의 경향들은 내용분석 연구들이 압도적이며 질적인 방법을 이용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나 나타나는데 여전히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윤경, 2000).

양적 방법을 이용한 내용분석 연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방법의 연구 경향들이 선보이게 된다. 내용분석 연구에서 미흡했던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신분석학이나 기호학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 텍스트에 내재해 있는 근본 모순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윤경, 2000).

1995년 심재연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결혼관을 중심으로 기

호학적 접근을 시도한 결과,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결혼의 모습은 변화하는 외형적 성격에 불과하며 여성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결혼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는 반페미니즘적 성향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기호학을 이용해 드라마에서 재현한 여성상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혜진(2000)의 연구가 있는데, MBC 주말드라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기호학적 분석을 적용하여 텍스트 속의 여성 직업관을 분석했다. 드라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드라마에서 나타난 가계도, 등장인물, 갈등구조, 시퀀스의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직업을 가진 여성의 이데올로기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V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여성 주인공의 일에 대한 자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을 중요시하는 어머니의 잣대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TV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직장 선택에 대해 여성 주인공이 만족스러워하는 직업의 가치관보다 부모, 특히 어머니가 선호하는 직업유형으로 강요된다. 그리고 TV 드라마에 나타난 직장여성은 퇴근 후 가정생활 속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을 강요받는다. 결국, TV 드라마에서 여성의 직업관은 여성 주인공의 자아실현의 한 형태로 부각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에 억눌리고 만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에서 나타나는 직업관의 대립은 전통적 가부장제 가치관 대 반대하는 가치관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TV 드라마에 방영된 여성의 직업의 모습은 변화하는 외형적인 성격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직업에 대한 주변인식은 여전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희(2001)는 텔레비전 드라마 <아줌마>의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구조와 해결구도를 분석하여, 드라마 <아줌마>에 드러난 지배 이데올로기, 즉 신화의 의미구조를 통한 사회와의 함의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부부, 친족, 연인, 계층의 갈등구조의 통합체적 분석과 남성과 여성, 부부, 학력별 계열체적 분석을 통한 갈등구조의 이항대립

적 구조를 파악하고 나아가 드라마 <아줌마>에 표출된 성역할, 부부, 사랑, 교수에 관한 신화를 통해 변화된 우리의 인식을 파악하여 대안을 찾고자 했다. 통합체 분석을 통해 드라마 <아줌마>에 표출된 부부, 친족, 연인, 계층의 갈등구조의 해소과정에서 밝혀진 점은 다음과 같다. 부부간 갈등관계에서 적극적, 주체적인 여성상이 제시되며 친족간의 갈등관계에서 학력, 능력, 경제력의 외적 조건이 요인이 되어 서로간의 역학적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간의 갈등관계가 두드러짐을 통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밝혀낼 수 있다. 그리고 연인간의 갈등관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남성우월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밝혀낼 수 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해서, 남녀간, 부부간, 학력간의 뚜렷한 이항대립적 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주체적인 여성상을 통해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부의 관계가 종속적 관계에서 독립적, 동반자, 협조적인 부부관계의 변화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드라마 <아줌마>는 여성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을 통한 경제적 독립으로 기존의 남성중심,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나타난 드라마이다.

김미정(2003)은 드라마 <고백>에서 부부, 애인,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사랑·성역할·부부·여성의 직업이 기존의 신화적 의미와 어떤 차별성과 유사성을 함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통합체 분석을 통해서 부부간은 결핍된 사랑으로 인해서 불륜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혼을 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것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애인간은 결혼을 한 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신세대적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 또한 친구간은 경제적인 능력이 대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주체적인 여성성을 그린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볼 수 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 독립적, 주체적인 여성성을 보여주고 무능력, 감성적, 감정적인 남성성을 보여줌으로써 성역할이 많이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진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를 갖고 전업주부는 상하관계를 가짐으로써 능력 위주의 주체적인 여성을 대접해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남성의 외도와 여성의 외도에서 아직 우리 사회는 여성의 외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김지은(2003) KBS 주말드라마 <내사랑 누굴까>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 노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대중매체가 생산해내는 여성노인의 이미지가 가사 일에만 매달리고 남성에게만 안주하려는 등 부정적으로 정형화되고 획일화되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드라마 <내 사랑 누굴까>의 남녀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성, 직업과 역할에 대한 계열체 분석 결과,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남성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성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젊은 세대들과 대비되며 극적인 이항대립적 성격으로 이미지가 고정되고 있어 여성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성노인은 사적 공간인 가정내에서 가사일에 몰두하고 가사일에만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비생산적이고 무능력한 이미지로 투영된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경제력을 지니고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노인에게 여성노인은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 남성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통합체 분석을 통해 본 남성노인과 대비되는 여성노인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은 여성들에게는 적대적인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남성들에게는 종속, 복종 혹은 무조건 편애의 관계가 확인된다. 따라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을 비롯한 남성들의 하위적 위치에 있으며 젊은 여성들에게는 군림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투쟁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 여성노인들끼리는 질투와 경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해결은 남성노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남성노인의 개입이 없는 경우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 여성노인의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간관계가 함축되어 나타난다. 결국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등식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되고,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에게 종속됨을 당연시 여기며 여성 위에서는 군림하려는 끊임없는 다툼을 통해 여성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배가 되어 표출되고 있다. 통합체 분석을 통해 본 등장인물간의 관계는 남성노인, 젊은 남성, 여성 노인, 젊은 여성의 순으로 서열화, 종속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이후,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진행된 드라마 속 여성성 연구의 결과, 드라마 속의 한국 여성상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발견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는 변화하는 여성의 지위와 경제적인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가부장적이었던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드라마 속 성역할이 변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 속 한국여성들은 여전히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남성에 비해 부수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연구도 있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상이 변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기호학을 이용해 드라마 속 여성상을 연구한 주요 논문

논문 제목	저자 (연도)	연구 결과
TV 드라마 속에 나타난 여성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박혜진 (2000)	•통합체 & 계열체 분석 결과 : -드라마 속 여성의 직업 인식은 사회적 시선을 중요시하는 부모님의 잣대에 의해 좌우된다. -드라마 속 여성은 직장 선택 시, 부모님이 선호하는 직업유형으로 강요된다. -드라마 속 여성은 직장에서 퇴근 후, 가사노동의 부담을 강요받는다.

		-드라마 속 여성의 직업관은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에 억눌린다. ▶결론: 여성에게 있어서 직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 <아줌마>의 갈등표출과 사회적 의미: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김승희 (2001)	•통합체 분석 결과 : -부부간 갈등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 주체적인 여성상이 제시된다. -친족간 갈등 관계에서 학력, 능력, 경제력의 외적 조건이 요인이 되어 역학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연인간의 갈등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남성우월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밝혀진다. •계열체 분석 결과 : -남녀간의 관계에서 주체적인 여성상이 나타나 성 역할의 고정관념의 변화하고 있다. -부부간 관계가 종속적 관계에서 독립적, 협조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결론: 기존의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나타난다.
TV 드라마에 나타난 성차별적 갈등구조와 이데올로기: MBC 드라마 <고백>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김미정 (2003)	•통합체 분석 결과 : -부부간 갈등에 대해 이혼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적, 주체적인 여성성이 보여진다. -애인간은 결혼 후 갈등을 겪는데, 가부장적 가치관과 신세대적 가치관이 충돌한 것이다. -친구간은 경제적인 능력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계열체 분석 결과 : -적극적, 독립적, 주체적인 여성성과 무능력, 감성

		적, 감정적인 남성성이 보여짐으로써, 성역할이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을 가진 여성은 남편과 평등한 관계를, 전업주부는 상하관계를 가지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다. -남성의 외도에 비해, 여성의 외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통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변화가 발견되지만 일부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남아있다.
TV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노인의 이미지 분석: KBS2 주말 드라마 <내 사랑 누굴까>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김지은 (2003)	·통합체 분석 결과 : -여성노인은 여성들에게는 적대적인 관계가, 남성들에게는 종속, 복종 혹은 무조건 편애의 관계가 확인된다. -여성노인들끼리 질투와 경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만 해결은 남성노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노인의 불완전하고 미숙한 인간관계가 함축되어 나타난다. ·계열체 분석 결과 :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성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남성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성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젊은 세대들과 대비된다. -여성노인은 가정내에서 가사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비생산적, 무능력한 이미지로 투영된다. -경제력을 지닌 남성노인에게 여성노인이 종속적인 모습을 보여 남성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극대화한다. ▶결론: 드라마가 생산해내는 여성노인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정형화되고 획일화되어 있다.

이렇듯 여성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아직도 전통적이고 남성중심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에서나마 서서히 기존의 여성성에 저항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여성상이 제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과연, 전통적이고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한국여성상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텔레비전과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

주로 빈곤탈출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 또는 결혼의 형태를 통해 한국사회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서열을 놓고 볼 때 스피박이 말한 주변인(혹은 하위주체, subaltern)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주류사회에 의해서 말해지고 규정되어지는 위치에 놓여있다. 신뢰성과 권위의 아우라를 가지고 뉴스나 다큐의 형태를 빌어, 또 영화나 드라마 등 사실적 내러티브의 형태를 통해 이들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주축은 각종 대중매체들이다. 대중매체가 재현해내는 이주여성의 이미지는 이주여성들의 자기 정체성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이들 여성에 대한 다수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이주여성들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정책결정의 토대로 작용한다. 즉 재현은 특정집단에 대한 의미구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물리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양정혜, 2007)

이산인들의 문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에 방영된 MBC의 오락 기획 프로그램, <! 느낌표>를 통해서이다. 이 프로그램

은 <박수홍, 윤정수의 아시아! 아시아>라는 코너를 통해 아시아 노동자들의 가족상봉, 한국의 재외이산인인 고려인과 위안부 등과 한국 내 국제결혼 가족의 가족상봉 등을 다루었다. 이후 2005년 말부터 KBS1 텔레비전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러브 인 아시아>가 ‘국제결혼가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산 현상, 농촌 현실, 혼혈아동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이경숙, 2006). 그 뒤 몇 편의 단편 드라마들과 주말극들이 여성 결혼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하거나 또는 조연으로 내세우면서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가정을 주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를 다룬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경숙(2006)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미디어 재현을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주로 다룬 <러브 인 아시아>라는 대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낯선 주제와 인물을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러브 인 아시아>를 질적인 텍스트 분석에 기초하여 텍스트의 장르적 관습을 분석하고 인물과 배경의 재현 방식에 초점을 두어 이산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화 실천의 수단과 전략을 밝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르적 관습과 인물의 정체성 재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의 의미화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멜로드라마적 주제와 이야기 구조를 통해 ‘이산(diaspora)’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감동적인 휴머니즘으로 ‘사사화(privatization)’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개별 국가나 인종에 의해 이산인으로서 타자성을 획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인공의 정체성을 ‘가족 구성원의 역할’로 환원하는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남성적 시선에 의해 정의되는 여성으로서 타자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재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공적으로 다루는 이산의 문제는 이산 자체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현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동후(2006) 역시,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는 국내 텔레비전 방송이 어떻게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적 정체성을 갖는 실질적인 존재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특

히, <러브 인 아시아>가 국제결혼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 아시아인의 문화적 차이나 혼성성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우리’로서 포섭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렇게 동화된 이주여성의 모습을 이상화함으로써 “포섭과정의 불평등과 억압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과 균열을 은폐한다고 지적한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한편에서는 이주여성을 “가시적 존재로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프로그램의 서사에 의해 정형화된 방식으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변화 된 존재로서 주류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나 이들의 현실적 맥락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고, 프로그램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체제에 의해 식민화된 그들이 만족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부각”시켜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송병찬(2006)은 1999년 이후 방송된 시사 다큐멘터리들이 국제결혼을 어떻게 ‘틀짓기’하고 있는지를 프레임 분석과 내용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에 가깝게 이야기되면서 기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이야기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타자화 되지만, 백인 서양 여성과 동남아시아 여성의 재현에 있어서는 위계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 역시, 다큐멘터리 제작 주체 남성과 대비되어 ‘노총각’, ‘농촌총각’으로 통칭되며 주변화, 타자화 된다고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매스미디어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복잡한 헤게모니 투쟁의 공간으로, 특정한 의미화의 방식과 논리를 통해 국제결혼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을 재생산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경석(2007)은 오경희(2007)의 연구를 재인용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한국의 방송미디어는 다문화를 여러 장르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상품화 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시킨다고 비판한다. 특히, 아시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의 상징으로 취급하면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제화’와 ‘신비화’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이분법적 이미지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재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시청자를 ‘경계심’과 ‘온정주의’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으로 양분화하면서, 동시에 왜곡된 이미지로 이주여성들의 삶을 ‘탈맥락화’시키고 한국 사회에서의 그들의 존재를 ‘타자화’시킨다고 본다.

<표 3> 미디어 및 공론장에서의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재현의 유형

부인 및 오인의 방식	부인 및 오인의 내용
문제화	빈곤, 무력감, 무지, 무개성, 무인격, 계몽의 대상, 소통불능, 위협적 존재
대상화	피해자, 희생자, 지원의 대상, 동화 및 통합의 대상, 낮은 위계, 동정의 대상
타자화	순결, 수동적인 객체, 순진하고 약한 자, 어수룩하거나 교활한 자, 배타적 객체, 관념적 타자

-출처: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재인용

이와 같이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과 시사 다큐멘터리 등에서 재현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질적 내용분석과 양적 내용분석, 그리고 프레임 분석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은 왜 그러한 연구 결과가 일어나는지 정교한 통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적이 없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의 재현방식을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드라마 속 여성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분석방법이지만 아직 여성 결혼이민자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의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까지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여성 결혼이민자 재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오락 프로그램이나 시사 다큐멘터리 등을 연구한 결과와 다른 것은 무엇이고, 동일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드라마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다루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어떤 주제를 통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살핌으로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미디어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텔레비전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디어 중에서 매체의 용이한 접근성과 불특정 다수를 포괄하는 두터운 수용자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은 대중적인 매체이며 그 중 드라마는 허구적 틀 속에서 극적 구성을 통해 서사적 재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하종원, 2003).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분석 대상은 이야기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서사성을 가진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수용자에게 전달시킴으로써 의미를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된다(이경숙, 2006).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수용자에게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데 사회적인 의미를 구성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KBS, SBS,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SBS <황금신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SBS <황금신부>는 2007년 6월 23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방송된 주말 드라마로 주간 시청률 10위권 안에 들며 연장방송을 하는 등 많은 인기를 누린 드라마이다. <황금신부>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1500만원에 팔려온 순수한 계약신부 누엔 진주(이영아 분)와 남편 강준우(송창의 분)와 서로 부딪치고 깨어지면서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휴먼 멜로 홈드

라마이다. SBS 측은 국경을 넘어 서울로 시집 온 진주의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를 통해 이 시대 부부,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감동의 드라마임을 밝히고 있다.³⁾ 특히, <황금신부>는 게시판을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연을 공모 받는 등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작업에 노력했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인 주인공이 베트남 국적의 신라이파이 한⁴⁾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국외에 있는 라이파이한 문제에까지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피스크(Fiske, 1987)는 영상을 통해 재현되는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형식과 관습에 의해 특정한 이야기로 전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인성(1999) 역시 타민족의 문화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텍스트 내에 제시된 인물과 배경, 그리고 사건이 현실을 표현하는 담론적 영상 관습 속에서 의미를 취하는 것이라고 살피고 있어 이러한 분석 대상을 살피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담론과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연구방법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국제결혼과 여성 결혼이민자, 그리고 한국 가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방법인 통합체 분석, 계열체 분석을 사용하겠다. 이는 기호가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해석되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론적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윤태일, 2004).

먼저, 통합체 분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

3) SBS 황금신부 홈페이지 <http://tv.sbs.co.kr/goldbride/index.html>

4) 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헤럴드경제』, 2007. 드라마에도 단일민족이 사라진다. 9월 7일)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 가운데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다양한 담론구조가 형성된다. 그리고 사건 속에서 기차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처럼 각각의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의 전화점이 존재한다. 결국 사건이 어떤 구조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해독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에 통합체 분석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야기의 시간적, 인과적 관계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 통합체적 분석은 계열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를 통해 이야기의 구조를 확연히 알 수 있다(박정순, 1995).

이에 반해, 계열체 분석은 두 개의 대립되는 이항대립쌍이 어떻게 대치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슷한 형태를 가진 두 개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각의 다른 두 구조의 차이를 살펴보다보면 대립적 관계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즉, 텍스트에 주어진 질서로부터 이항대립쌍들을 이를 만든 것을 뽑아내서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틀로 재조직하는 일이 필요한데, 바르트는 이런 과정이 독자를 저자로 만든다고 했다. 즉,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필요한 것만을 여과시켜 우리의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한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항대립은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첫째는 범주화이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분류를 한다. 둘째는 의미생산의 기초가 된다. 이항대립쌍의 한쪽은 나머지 한쪽의 대립적 의미를 전제하고 자신의 의미를 세운다. 모든 것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셋째는 구조적인 것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항대립쌍은 부분과 전체다. 부분은 전체의 테두리에서 의미로워지고, 전체는 그것의 의미를 부분에서 얻는다. 부분은 구체적인 수많은 이항대립쌍들로 나뉘지고 각 이항대립쌍들은 어떤 구조의 구성단위가 된다. 즉, 계열체내의 기호의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점은 계열체내의 다른 항목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호 단위의 의미는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계열체 관계는 다른 기호와의 유사정보보다는 대립성에 초점을 둔다. 이와 같이 계열체를 구성하는 단

위들은 잠재적인 것들로서 계열체적 관계는 특정 기호가 갖는 연상적인 부가의미의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김승희, 2001).

마지막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함축적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밝혀내기 위해 신화 분석 방법을 채택한다. 신화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된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는 이들은 신화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사회적 함의를 파악해야 한다. 신화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TV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의미화 구조를 찾음으로써 기존의 신화와 차별화된 새로운 신화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르트의 신화 분석을 통해 드라마 텍스트에 내포된 의미를 알아내고, 이를 기존 사회의 신화와 대비함으로써 여성 결혼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밝혀내도록 하겠다.



IV. 연구결과

1. <황금신부> 통합체 분석

1) 서사구조

드라마 <황금신부>는 크게 네 개의 전환점에 따른 갈등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첫 번째 전환점은 베트남 여성인 진주가 국제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후, 공황장애라는 병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 남편이 베트남으로 돌아가길 권유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다. 이 갈등은 진주가 남편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다짐으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지 않음으로써 해결된다. 두 번째는 병이 완치된 남편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자 대학시절부터 남편을 짝사랑하던 여성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는 똑똑하고 능력있는 한국여성과 남편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게 된다. 이 갈등은 자신의 사랑을 진주에게 확인시켜주기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에 진주가 감동하면서 해결된다. 세 번째 전환점은 시댁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진주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에게 떡을 전수받기로 결심하는 부분이다. 전통떡 장인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남편의 첫사랑 여성과 경쟁하게 된다. 이는 정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경합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가 승리함으로써 해결된다. 마지막으로 라이파이한인 진주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간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지만 친아버지가 자신을 딸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고조된다. 이는 친아버지가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주인공인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얹혀진 등장인물을 통해 나타나는 갈등과 해결과정이 이 드라마의 서사구조를 이룬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드라마 <황금신부>의 서사구조

	국제 결혼	➔	죄책감에 시달리던 남편이 진주에게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	➔	남편의 병을 치료하겠다는 진주의 다짐과 노력
➔	병이 완치돼 축망받는 직장인이 된 남편	➔	직장 동료이자 남편을 짝사랑하는 인경의 등장으로 갈등 심화	➔	진주에 대한 남편의 깊은 사랑을 확인
➔	전통떡 장인의 후계자가 되려는 진주	➔	남편의 첫사랑과 전통떡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	➔	실력으로 전통떡 후계자가 되는 진주
➔	진주와 친아버지와의 만남	➔	라이파이한 딸의 존재를 부정하는 친아버지와의 갈등	➔	가족들의 용서와 화해

2) 드라마에 나타난 갈등구조

드라마의 서사구조에는 등장인물의 갈등요인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즉,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플롯의 핵심이 된다. 등장인물이 표현하는 피상적인 표면을 파헤치면 추상적인 지배적 가치의 구현으로서, 사회적 갈등의 수행자로서 등장인물의 갈등을 볼 수 있다. 등장인물 갈등의 대립적 구조가 의미있는 것은, 이 구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결되는지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해석할 때, 드라마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갈등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근본 줄기이므로 드라마를 갈등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윤석호, 1990).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갈등이 가장 고조된 시퀀스들을 중심으로 통합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부부간, 친족간, 세대간, 또래 여성간에 나타난 갈등구조와 그 해결구도를 분석해 이야기 구조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도출해 내기로 하겠다.

(1) 부부간 갈등

국제결혼을 한 진주와 준우의 갈등은 드라마 초반에 주로 나타난다.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된 준우는 진주가 낯설게만 느껴지고 첫사랑이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은 남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진주에게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진주는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고조된다. 이 갈등의 원인은 낯선 여인과 계약처럼 이루어진 국제결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준우와 처음 본 사람과도 마음을 먹으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주의 결혼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진주 안 가요! 나 안 돌아가요!
한국에서 아저씨랑 살 거예요.

준우 진주씨?

진주 상관없어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가 아프든
상관없어요!
나 그냥 살 거예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아저씨!!!

준우 멍청한 거예요?
아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 했잖아요!
난 결혼할 수 없는 몸이라고! 자격이 없다고!

진주 결혼하는데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저씨면 돼요! 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아저씨!

준우 내가 싫어요!! 내가 당신한테 빚지는 게 싫다고요!
이런 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신한테 짐 같은 거 떠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가요! 제발 좀 돌아가요!

진주 싫어요! 안가요! 절대로 안가요!

아무리 설득해도 진주가 베트남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준우는 당분간 가짜 부부 행세를 하자고 진주에게 제안한다. 가짜 부부 행세를 해서라도 한국에 남고 싶은 진주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돕고 싶어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갈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준우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진주가 자신을 동정한다고 생각하고 진주에게 오히려 화를 낸다. 이 갈등구조의 원인은 사랑없이 한 결혼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남편의 가치관과 아내의 인내와 헌신이 있으면 부부관

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진주의 가치관이 충돌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진주 (얼른 신발 가져다) 이거 아저씨 거 맞죠?

지금 더운 때라 밖에 사람들 없어요.

같이 뒷산에 올라가요.

준우 제발 그만해요! 귀찮아 죽겠으니까!

진주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좋았어요!

준우 내가 말했죠! 이러지 말라고!

진주 아저씨! 약속했잖아요, 오늘부터.....

준우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요! 한방 쓰니까 진짜 부부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린 어디까지나 남남이예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일에 상관이에요!

진주 그건 아저씨 아프니까 빨리 낫길 바라니까.....

준우 동정한다 이거죠! 근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 싸구려

동정 따위 받고 싶지 않아요!

진주씨 이러는 거 날 더 비참하게 할뿐이니까.

진주 그런 거 아니예요, 아저씨. 아니예요, 아니예요!

준우 그럼, 미안해서 그래요? 호적까지 더럽히면서 가짜 남편
행세해줘서?

그럼 차라리 가만있어요! 그게 날 위한 길이니까!

결국, 진주와 준우의 갈등구조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없이 이뤄진 결혼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한국인 남편과 계약에 의한 국제결혼이라도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관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갈등은 준우가 진주와의 결혼생활에 안정을 찾으면서 소멸되게 되는데, 갈등의 해결방법은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가 남편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

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여성이 더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구조

배역명		갈등 원인		해결 구도
누옌 진주 (아내)	➔	아내의 희생이 있으면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통적 가치관	➔	진주의 끊임 없는 노력과 설득으로 진 정한 부부관 계가 이뤄짐.
강준우 (남편)		결혼이라는 형식적 관계 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2) 친족간 갈등

진주를 베트남에서 데려오게 된 시어머니, 한숙은 남편에게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베트남 전통 옷을 입고 온 진주에게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다그친다. 한숙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진주가 베트남 신부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한숙은 서울대까지 나온 자신의 아들이 동남아 출신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겨, 진주를 재미교포라고 속이기로 한다. 이 갈등구조의 원인은 동남아 출신의 며느리는 부끄럽고 재미교포 며느리는 그렇지 않다는 한숙의 속물적이고 사대주의적인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숙 (일각에 주저앉아 다급히 가방 속에서 진주 입을 만한 옷
챙긴다)

진주 뭐하세요. 오모니? 짐 검사 볼써 했어요!

군자 뭘 그렇게 찾아요?

한숙 (적당한 티셔츠와 바지 꺼내)옳지! 이거면 되겠다.
(화장실로 밀며) 얼른 들어가 갈아입고 나와! 얼른!

진주 (버티며)왜..왜요? 오모니?

한숙 군말 말구 빨리!

진주 오머니..?

군자 언니두 참, 그렇게 창피하우?

한숙 베트남 색시 얻었다고 동네방네 광고할 일 있수?

군자 허긴, 재미교포라고 뽕을 쳤으니.....

여성결혼이민자인 진주의 존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시댁식구들의 갈등구조는 진주가 없는 자리에서 시댁식구들끼리 나누는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주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병을 완치하게 된 준우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앞두고 있다. 진주는 준우의 면접을 위해 몇시간 동안 시장을 돌며 베트남에서 행운의 색으로 여기는 원색의 넥타이를 선물한다. 하지만 촌스러운 넥타이 색에 놀란 시댁 식구들은 진주가 없는 틈을 타, 준우의 넥타이를 바꿔준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가 촌스럽고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 여성이며, 이렇게 부족한 아내가 남편의 앞날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숙 준우야, 넥타이 이걸로 바꿔 매!
망설일 것 없어! 면접은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렇게 튀는 걸 했다간 자살행위야.

준우 저두 솔직히 고민이 돼서요. 은행이나 투자 쪽은
돈을 관리하는 곳이라 옷차림이 보수적인 걸 원하거든요.

한숙 그러니까 어서 바꿔 매! 정성두 좋지만 현실에 맞아야지!

준우 그럼 진주씨 서운할테니 면접장에서만 맬게요.

한숙 알았어. 그럼 잊지말구 꼭 바꿔 매!
 하여간 진주가 배울 게 한둘이 아니다!
 군자 누가 아니래! 이제 준우 인생은 십육차선 고속도로로 짝
 출세가도를 달릴 건데 진주가 따라갈까 모르겠어.
 한숙 (등 탁치며) 고모! 듣겠다.

이처럼 여성 결혼이민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친족간의 갈등관계를 분석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진주가 동남아 출신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주의 모국인 베트남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보다 촌스럽거나 못하다고 생각해, 하루빨리 진주가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친족간의 갈등은 점차 줄어들는데, 이는 진주가 한국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시댁 식구들의 갈등구조

배역명		갈등 원인		해결 구도
김한숙 (시어머니)		미국 출신 며느리는 자랑스럽고, 동남아 출신 며느리는 수치스럽다는 사대주의적 가치관		진주가 한국 문화에 적응 하면서 서서 히 갈등이 해결됨.
군자 (시고모)	➡	베트남 문화가 한국 문화 보다 못 하다고 여기는 자민족중심주의	➡	

(3) 세대간 갈등

진주는 시아버지가 경영하는 식품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떡 장인에게 그 솜씨를 이어받아 전통떡을 상품화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된 진주는 무작정 ‘예원’을 찾아간다. 예원은 한국에서 가장 전통떡을 잘 만든다는 허복례가 운영하는 곳으로 허복례 역시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복례는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온 진주를 냉정하게 돌려보낸다. 진주는 문전박대를 당해도, 매일 예원을 찾아가 떡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이같은 갈등 구조의 원인은,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는 인물로 구세대를 대표하는 허복례가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를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한 한국인 핏줄이 아닌 사람에게 한국의 맛을 이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복려 꼭 떡을 배워야겠냐?

진주 네! 꼭 배워야겠어요!

복려 이유가 뭔데! 저번에 말했듯이 떡 많이 팔아서 그 돈으로
 시아버지 공장 돕겠다구?

진주 네.

(중략)

복려 참 생각은 가늠하다만 어쩌니 내가 널 가르칠 생각이
 없는데!

진주 할머니!

복려 댄 데 가서 알아봐. 니가 암만 치대도 메이드인 코리아가
 아니면 안 가르쳐!

한국인이 아니면 떡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겠다던 한복려는 진주가 라이파이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떡을 배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감동

을 받으면서 진주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고된 수련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하지만 후계자 결정을 앞두고 한국 여성이자 자신의 조카 며느리인 지영과 경쟁을 해서 이기면 그 때, 후계자 자리를 주겠다고 말한다. 이에 진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허복례에게 실망해 화를 낸다. 이런 갈등구조는 한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이나 노력보다 우선되는 것이 같은 핏줄이어야 한다는 허복례의 혈연중심주의적 가치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진주 할머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후계자로 삼으시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곧 좋은 선물을 주실 거라고. 그게 아버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려 진주야!

진주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많이 부족했나요?
할머니 후계자 되기에 그렇게 많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요?

복려 그것도 이유 중 하나다! 아까 말했듯이 나한테 소중한 일인데 아무에게나 물려줄 순 없지 않겠니!
너는 한국 사람 피를 받았지만 베트남에서 이십년 넘게 산 사람이야. 서로 입맛이 다른데 전통떡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나두 모르겠다.

진주 너무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복려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그만두면 돼!

신세대인 진주와 구세대인 허복려의 갈등관계를 분석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는 없다는 편견에서 갈등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결국 구세대의 눈에 비친 여성 결혼이민자는 영원한 이방인인 것이다. 드라마 후반으로 가면, 허복려와 진주의 이러한 갈등구조는 진주가 지영과의 전통떡 만들기 대결에서 최종 승리함으로써 해결구도를 맞는다.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가 한국인인 지영보다 더 우수하게 한국 전통떡의 맛과 모양, 향기를 되살려내면서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표 6> 여성결혼이민자와 구세대 한국여성과의 갈등구조

배역명		갈등 원인		해결 구도
누엔 진주 (제자)	➔	한국에 살면 누구나 한국인이며 한국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다민족주의적 가치관	➔	진주가 한국 인보다 뛰어난 떡을 만 들게 되어 인정을 받음.
한복려 (스승)		순수한 한민족 핏줄을 가진 사람만이 한국의 전통을 이을 수 있다는 혈연중심주의적 가치관		

(4) 또래여성간 갈등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와 갈등관계에 놓이는 또 다른 한국 여성으로는 인경을 들 수 있다. 인경은 진주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으로 진주의 남편, 준우를 사이에 두고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대학시절부터 준우를 짝사랑했던 인경은 준우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곧 준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한다. 준우의 아내인 진주를

처음 보는 날, 능력과 외모를 갖춘 준우가 자신보다 더 멋진 여성과 결혼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깨고 동남아 출신 여성이란 결혼한 것에 놀라며 은근히 진주를 무시한다. 이같은 갈등구조는 학력이나 출신 국가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배우자의 수준이 정해진다는 인경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경 참 앓돼 보이는데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진주 스물 하나요!
인경 어머! 그럼 대학 재학 중에 결혼하신 거예요?
진주 저 대학 못 갔어요.
인경 아, 네. 그럼 강선배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
진주 저, 베트남에서 왔어요.
인경 어디요?
진주 베트남 호치민이요.
인경 그럼, 강선배 여행하다 만났어요?
진주 아뇨. 제가 아저씨 사진보고 시집 왔어요.
아저씨랑 저..... 많이 안 어울리죠?
인경 미안해요. 좀 뜻밖이라서.....
선배가 그런 결혼을 할 줄 몰랐어요.
진주

처음 준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준우에 대한 마음을 접으려 했던 인경은 그 상대가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준우에게 다가간다. 준우의 생일날,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내용을 담은 카드와 함께 선물을 건네고 그것을 진주가 보게 된다. 인경이 준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주는 인경에게 카드에 적힌 말의 뜻이 무엇 이냐고 따져 묻는다. 이 갈등구조는 동남아 출신의 아내인 진주의 존재를

무시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경의 당돌함과 준우의 성공으로 점점 초라함을 느끼는 진주의 자신감 없음이 대비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경 그 선물이 어때서요? 존경하는 선배한테 같은 직장 동료로서 순수하게 선물한 건데 그걸 왜 돌려줘요?

진주 순수해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아저씨한테 하루빨리 어울리는 삶을 찾으라구요? 그럼 지금은 어울리지 않게 살구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 쓴 뜻이 뭔데요?

인경 자격지심까지 있어요?

진주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전에 나한테 말했죠. 나랑 아저씨랑 안 어울린다고! 그런 뜻에서 쓴 거 아닌가요?

인경 진주씨, 해석이야 자유지만.....

진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차인경씨 우리 아저씨 좋아하죠? 그래서 일부러 나 보여주려고 이런 카드 쓰고 선물도 보낸 거죠?

인경 강선배 너무 피곤하게 살고있군요.

진주 차인경씨!

인경 관두죠. 사람 수준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니까! 불쾌했다면 내가 사과할게요. 그만 돌아가세요.

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인경씨는 우리 아저씨 아니더라도 좋아할 사람 많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아저씨랑 나 사리에 끼어들지 말아요. 난 인경씨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구요!

인경 진주씨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철봉에 매달린 아이 같아요. 올라가자니 능력이 딸리고 내려오자니 여태 매달린 게 아깝고..... 참 안쓰러워 보이네요.

결국, 여성 결혼이민자 진주와 또래 여성인 인경간의 갈등은 남편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고학력에 능력을 갖추게 되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인이 된 한국 남성이 저학력의 동남아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인경의 차별주의적 사고와 진주의 자격지심이 갈등구조의 근본 원인이 된다. 여기서 또래 여성인 인경은 자신이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우월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함을 파악할 수 있다. 갈등은 준우가 아내인 진주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진주 역시 준우의 아내로서 자격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 전통떡 배우기에 매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러한 갈등구조와 해결구도는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학력과 출신국가, 사회적 지위 등의 외적조건이 비슷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7> 여성결혼이민자와 또래 한국여성과의 갈등구조

배역명		갈등 원인		해결 구도
누엔 진주 (여성 결혼 이민자)	➔	배우자에 비해 외적조건을 갖추지 못한 데에서 오는 자격지심	➔	진주가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찾아 자신감을 갖게되면서 해결됨.
차인경 (한국여성)		명문대 출신의 한국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학력 차별주의, 인종 차별주의		

3) 통합체 분석 결과 나타난 <황금신부> 이야기 구조의 의미

드라마 속에서 통합체적 구조는 이야기의 인과적 관계로 연결되며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간의 외연적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 또한 계열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체적 구조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명시적인 이야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김미정, 2003).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드러난 부부간의 갈등구조는 사랑없이 이뤄진 결혼은 의미가 없다는 젊은 세대의 결혼관과 결혼 이후, 아내의 희생이 있으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의 대립이 원인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결혼이민자인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인내하고, 남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헌신한다. 국제결혼의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상을 재현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오히려 가정을 위해 여성이 더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친족간의 갈등구조는 문화적 차이가 그 주된 원인이다. 사랑과 이해로 감싸야 할 친족간에도, 베트남 출신이란 이유 때문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이에 더해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의 문화를 존스럽고 무지한 것으로 생각해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베트남 문화보다 한국의 문화가 우위에 있다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사대주의적 가치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족간의 갈등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외모나 생활방식이 점점 한국화 되어가면서 해결된다.

세대간의 갈등구조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는 없다는 구세대의 폐쇄적인 혈연중심주의적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구세대에게 한국의 전통을 전수받으면서 이 갈등구조는 비로소 해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여성들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구세대의 눈에 비친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인

식됨을 파악할 수 있다.

또래여성간 갈등은 고학력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한국 남성이 여성 결혼이민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이 원인이다. 이는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학력과 출신국가, 경제적 능력 등의 외적조건이 비슷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이 갈등구조를 통해서 한국인인 또래여성이 여성 결혼이민자를 학력 차별주의, 인종 차별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또래여성과의 갈등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부부관계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찾아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해결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드라마 <황금신부>의 통합체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갈등구조와 해결구도를 살펴 본 결과, 갈등의 원인은 개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 대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립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여성들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계적 차별구조가 나타난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족이나 아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됨됨이 보다, 출신 국가와 학력, 경제적 능력 등의 외적 조건이 우선시 된다. 결국 외적 조건이 부부나 가족, 사회내의 역학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라는 조건은 계급적, 인종적, 성적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약자의 위치임이 밝혀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모든 갈등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가 인내와 희생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때에만 비로소 갈등이 해결구도를 맞는다. 이는 갈등을 만드는 또 하나의 주체인 남편이나 시댁 가족들, 구세대나 또래 여성들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가정과 사회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만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를 요구하는 모순적 사고가 드라마 속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황금신부>의 계열체 분석

1) 주요 등장인물

드라마 <황금신부>의 등장인물은 크게 국제결혼을 한 진주의 시댁 가족과 한국여성인 지영의 시댁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베트남 국적을 가졌지만 국제결혼을 해 한국으로 온 진주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파이한이다. 효심이 지극한 진주는 어머니의 눈 수술을 돕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지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아 괴로워한다. 하지만 남편의 병을 치료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 다혈질에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시댁에서나, 떡을 배우는 예원에서 사소한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마음먹은 것은 해내고 마는 집념을 가지고 있다. 진주의 남편인 준우는 첫사랑의 배신으로 공황장애를 갖게 되어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간다. 어머니의 강요로 국제결혼을 하게 되지만 아내의 호의를 차갑게 거절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방황한다. 나중에는 진주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삶을 찾게 되고 이지적이며 따뜻한 감성을 지닌 본래의 성격을 되찾게 된다. 준우의 아버지 우남은 촌스럽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성격이다. 준우의 어머니, 한숙은 자식들의 성공에 집착하지만 아들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자 크게 실망한다. 처음에는 베트남에서 데려온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점차 며느리를 인정하게 된다. 이 외에 엉뚱하고 덜렁대는 성격의 원미와 낙천적이지만 새침한 성격의 세미, 자신감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준우의 고모 군자가 등장한다.

진주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지영은 준우의 첫사랑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부터 상류사회를 동경해오다 준우를 배신하고 대기업 후계자인 영민과 결혼한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고 소유욕이 강하다. 지영의 남편인 영민

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인간관계나 일에 있어서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영민의 아버지인 성일은 가정에서는 낭만적인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이며 회사에서는 능력있는 경영인이다. 영민의 어머니인 옥경은 남편 자랑, 자녀들 자랑을 하며 잘난 척을 하거나 쇼핑을 하는 것이 생활의 즐거움이다. 영민의 동생인 영수는 인생의 목표도 없이 노는 것만 좋아하는 한량으로, 철이 없고 천방지축이다.

그 외에 전통떡 만들기의 장인으로 진주와 지영에게 떡 만드는 법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허복례와 소심하고 철이없는 고시생 동구, 여성처럼 섬세한 성격을 지닌 벽수, 평생 한 남자를 기다리며 진주를 키워온 지고지순한 성격의 리엔팜, 그리고 진주의 존재를 무시하며 준우를 짝사랑하는 당돌한 성격의 차인경이 등장한다.

<표 8>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및 배경

□진주의 시대 가족들

이름	성별/나이	등장인물의 관계	직업	성격 및 배경
누엔진주	여/ 20대	준우의 아내	전통떡 전문가 지망생	베트남 국적의 신라이파이한. 사생아로 자랐지만 씩씩하고 밝게 자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 덜렁이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은 해내고 마는 집념의 소유자.
강준우	남/ 20대	진주의 남편	회사원	어머니의 강요로 진주와 국제결혼을 함.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살아오지만 첫사랑의 배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회와 유리돼 방황함.
강우남	남/ 50대	준우의 아버지	영세식품 회사사장	존스럽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함. 진주를 늘 이해해주고 위로해줌.

정 한숙	여/ 50대	준우의 어머	전업주부	가난한 남편에게 한이 맺혀, 자식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감. 진주를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하지만, 점차 며느리의 진심에 감동함.
강원미	여/ 30대	준우의 누나	바이올린 강사	영똥하고 덜렁대는 성격의 노처녀.
강세미	여/ 20대	준우의 여동생	대학생	모델학과 재학생으로 낙천적이고 도발적인 귀여운 바람둥이.
강군자	여/ 40대	준우의 고모	회사 경리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세상에 큰 기대 없이 살아감.

□지영의 시대 가족들

이름	성별/ 나이	등장인물의 관계	직업	성격 및 배경
옥지영	여/ 20대	영민의 아내	회사원, 전통떡 전문가 지망생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늘 상류사회에 대한 동경이 큼. 첫사랑 준우를 배신하고 영민과 결혼함. 진주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짐.
김영민	남/ 20대	지영의 남편	대기업 경영진	늘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가업을 계승할 든든한 맏아들 역할을 해옴. 인간관계나 일에 있어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임.
김성일	남/ 50대	영민의 아버지	대기업 대표	부드럽고 낭만적인 남편이자 모범적인 아버지이며 실력있는 재력가임.
양옥경	여/ 50대	영민의 어머니	전업주부	한숙의 고교후배로 한숙을 따랐지만 한숙의 애인이었던 성일을 빼앗음. 평생 한숙을 무시하고, 자식들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경쟁관계에 놓임.
김영수	남/ 20대	영민의 동생	휴학생	아쉬운 것 없이 자란 부잣집 막내로 철이 없고 노는 것을 좋아함.

□기타 인물들

이름	성별/ 나이	등장인물의 관계	직업	성격 및 배경
허복례	여/ 70대	진주와 지영의 스승	전 통 떡 장인	전통떡의 대가로 ‘예원’이란 고급 요리 강습소를 열어 상류층 며느리들을 가 르침. 겉으론 엄격하지만 속으론 정이 많음.
허동구	남/ 20대	원미의 남편	고 시 준 비생	세미를 쫓아다니던 복학생 선배였지만 원미와 정이 들어 결혼하게 됨. 소심하 고 철이 없음.
차벽수	남/ 40대	군자의 남편	영 세 식 품 업 체 직원	빨래며 요리, 십자수 놓기가 취미이자 특기인 섬세한 남자. 착하고 수줍음이 많음.
리엔팜	여/ 40대	진주의 어머니	주부	과거 성일과의 사랑을 잊지 못해 평생 미혼모로 진주를 키움. 지고지순함을 지님.
차인경	여/ 20대	준우와 지영의 대학후배	회사원	준우가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자 진주 를 무시하고 준우에게 적극적으로 다 가감. 당돌하고 야무진 성격의 소유자.

2) 여성등장인물과 남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1) 여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여성 인물들간의 성격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여성들과 여성 결혼이민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세대별로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먼저, 40대 이상의 구세대를 대표하는 한숙과 옥경의 성격 및 특성을 살펴보면 남편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다. 특히, 자녀에 대

해서는 집착이 강해서 한숙은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옥경 역시 결혼 후 아들 부부의 사생활까지 일일이 참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간 강한 질투심을 발견할 수 있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진주의 어머니이자 과거 성일과 베트남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리엔팜은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울 만큼, 순종적이고 자식에 대한 욕심보다는 사랑이 넘치며, 지고지순함을 간직하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재현되고 있다.

신세대를 대표하는 20대 한국 여성, 지영과 인경은 드라마에서 진주와 경쟁관계에 놓이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들에게서도 공통점이 발견된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지영과 인경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애가 강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욕심이 지나치다. 이들은 남성이나 지위, 재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고 누구 앞에서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당돌한 성격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같은 20대로 여성 결혼이민자인 누엔 진주는 낙천적이고 순수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가 강하고 자신보다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배려심이 깊은 긍정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강원미와 강세미는 철이 없고 덜렁되며 내숭을 잘 떨며 주체성이 떨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 <황금신부>에 나타난 여성들의 성격 및 특성을 정리하면,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 여성들은 욕심이나 집착이 많은 부정적인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의지가 강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긍정적인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난다.

<표 9> 여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이름	나이	성격 및 특성
누엔진주	20대	착함, 낙천적, 순수함, 씩씩하고 밝음, 의지가 강함. 효심이 강함, 온순함, 자기희생적, 배려심이 깊음.
옥지영	20대	자기애가 강함, 질투심이 많음, 성공지향적, 허영심이 많음, 계산적, 영악함, 주체적.
차인경	20대	성공지향적, 소유욕이 강함, 주체적, 당돌함.
정한숙	50대	자녀에 대한 집착이 강함, 질투심이 많음, 남의눈을 의식함, 감정적.
양옥경	50대	낭비벽, 감정적, 계산적, 잘난 척을 잘함.
리엔팜	40대	순종적, 착함, 자기희생적,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음, 지고지순함.
강원미	30대	철이 없음, 털털함, 자기주체적이지 못함.
강세미	20대	낙천적, 내성, 비이성적.
강군자	40대	단순, 무식, 수다스러움, 주체적이지 못함.
허복례	70대	음흉함, 보수적, 권위적임.



한국 여성들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성격 및 특성 비교

	한국 여성들	여성 결혼이민자	분석
구세대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고, 집착이 강함. 질투심이 많음. 감정적, 권위적임.	순종적, 착함, 자기희생적,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 지고지순함.	⇒세대를 막론하고, 한국여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부정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 결혼이민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긍정적인 성격을 소유
신세대	자기애가 강함. 성공지향적, 소유욕이 강함, 당돌함. 욕심이 많음.	착함, 낙천적, 순수함, 의지가 강함, 온순함, 자기희생적, 배려심이 깊음.	

(2) 남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들간의 성격 및 특성들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국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과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들을 대별할 수 있다. 이른바, 구세대라 할 수 있는 김성일과 강우남은 철이 없거나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아내들을 이해하고 아내들의 잘못을 자상하게 타이르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가족이나 직장에서 근면성실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김성일의 경우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된 계기가 과거 베트남 아내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갖고 나서부터다. 김성일은 젊었을 때, 한국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안주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방황하며 감정적인 성격으로 살다가, 베트남 아내 리엔팜을 만나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20대의 등장인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한 김영민은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의 화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사에 당당하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허동구나 김영수도 허풍이 세고 철이 없으며 감정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하지만 가족에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국제결혼을 한 강준우는 결혼 전에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으며 나약하고 늘 불안감에 시달리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성격이었지만, 결혼 후 병을 완치하고 난 후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다정다감한 긍정적인 성격의 특성을 보인다.

드라마 <황금신부>의 남성간의 성격의 특성은 여성들의 성격만큼 세대별, 출신 국가별로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성 결혼 이민자와 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의 경우, 결혼 전 가졌던 부정적인 성격이나 특성이 여성 결혼이민자를 만난 이후 긍정적인 성격과 특성으로 변모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10> 남성등장인물간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이름	나이	성격 및 특성
강준우	20대	나약하고, 대인기피증이 있었으나 결혼 생활 안정 후 이성적, 합리적이 됨. 주체적, 자립심, 논리적, 다정다감.
김영민	20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함. 당당함, 논리적, 이성적. 완벽주의자.
김성일	50대	과거 방황하던 시절, 베트남에서 리엔팜을 만나 안정을 되찾았으나 한국으로 떠나옴. 이성적, 다정다감, 합리적.
강우남	50대	너그러움, 이해심이 많음, 근면성실, 자상함, 이성적.
김영수	20대	철이 없음, 애교가 많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음.
허동구	20대	허풍이 썸, 감성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 해결하려 애씀.
차벽수	40대	섬세함, 자상함, 근면성실, 너그러움.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과 국제결혼한 남성의 성격 및 특성 비교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	국제결혼한 남성	분석
구세대	이해심이 많음, 자상함, 이성적, 근면성실함.	국제결혼 전에는 방황 하며 한곳에 정착하지 못했으나, 결혼 후 이성적인 성격이 됨.	⇒한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과 비교해,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 은 결혼 후 성격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부정적인 성격에서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함.
신세대	논리적, 당당함, 집안 갈등 해결하 려 애씀.	국제결혼 전에는 나약 하고 늘 불안해하는 성격이었지만, 결혼 후 합리적이고 주체적 인 성격으로 변함.	

(3)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국제결혼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성격 및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 전부터 밝고 온순하며 여러 어려움을 만나도 헤치고 나가는 집념과 의지가 강하고 어머니나 남편, 시댁 식구들을 위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배려심 또한 깊은 긍정적인 인물로 재현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인 남편은 결혼 초기까지는 몸과 마음이 나약하며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이 크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와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치적이고 다정다감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성격 및 특성은 매우 긍정적인 성향으로, 한국인 여성·결혼 전 한국인 남편의 부정적 성향과 이항대립적 구조를 보임이 발견되었다.

<표 11> 여성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성격 및 특성 비교분석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	한국인 남편	분석
착함, 낙천적, 순수함, 의지가 강함, 온순함, 자기희생적, 배려심이 깊음	국제결혼 전에는 나약하고 대인기피증 등 늘 불안해하는 성격이었지만, 결혼 후 합리적, 주체적이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변함.	⇒결혼 초,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의 성격이 대비됨. 그러나 결혼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인 남편의 부정적인 성격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력으로 변화됨.

3) 여성등장인물과 남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1) 여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드라마 <황금신부>에 나타난 여성의 직업 및 역할을 비교분석한 결과,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정한숙과 양옥경은 학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가사, 육아 등 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난다. 70대의 허복례의 경우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요리솜씨를 발휘해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장인이 되는 것으로 여성적 직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베트남에 살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던 리엔팜의 경우에도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업을 갖게 되는데 주로 청소나 요리 등을 담당하는 여성적 직업이나 허드렛일을 하는 비전문적인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그려진다.

이에 비해, 20대 한국 여성들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전문 경영인이 되기 위해 능력을 쌓으며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고자 한다. 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으며 사적 역할에만 머무르던 한국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공적 역할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치중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자신의 야망을 쫓느라 가사 일을 팽개쳐두거나, 타인들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같은 20대이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의 경우, 시어머니와 함께 가사분담을 계속 하면서 전통떡 만들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진주가 전통떡 장인의 후계자가 되려는 이유는 시댁이 운영하는 영세 식품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진주는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할 줄 알았던 특기를 살려 가이드라는 직업을 가졌다. 한국으로 시집 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살린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시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며느리 역할의 하나로서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직업과 역할에 있어서 한국여성들은 사적, 비전문적, 여성적 직업과 역할에서 공적, 전문적, 능동적인 직업과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능력있고 성공한 여성일수록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부각되어 부정적으로 정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적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면서도 직장생활을 무리없이 해나가는 모습, 그리고 가족주의의 틀 아래서 직업을 선택하고 집안을 번성시키는 모습 등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 및 역할이 긍정적으로 재현되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결과다.



<표 12> 여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이름	나이	직업	역할
누엔진주	20대	베트남에서는 가이드 ->한국에서는 전통떡 장인의 후계자	가사분담. 시택이 경영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함.
옥지영	20대	회사원이자 전통떡 장인의 후계자	가사분담 안 함. 최고 경영자가 되 겠다는 야망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차인경	20대	회사원	뛰어난 능력의 커리어우먼이지만 준우를 차지하려 계락을 세움.
정한숙	50대	전업주부	가사담당
양옥경	50대	전업주부	경영자 남편 내조
리엔팜	40대	여러 가지 일을 함.	자식을 위해 허드렛일을 해옴.
강원미	30대	바이올린 강사	어린이들 바이올린 과외
강세미	20대	대학생	모델 지망생
강군자	40대	회사원	오빠의 회사일을 도움.
허복례	70대	전통떡 전문가	한국 떡 만들기의 장인임.



한국 여성들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 및 역할 비교

	한국 여성들	여성 결혼이민자	분석
구세대	가사 등 사적 역할 이나 떡 요리가 등 여성적 직업	비전문적인 일을 해옴.	⇒한국여성들은 구세대에 서 신세대로 올수록 사적 역할이나 여성적 직업에 서 전문적 직업으로 변모 함.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 자는 사적역할을 포기하 지 않고 가족주의의 틀 아래서 직업을 선택함.
신세대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회사원 등 전문직 직업	가사 등 사적역할을 담당하고, 시택의 가업을 잇기 위한 직업을 선택함.	

(2) 남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드라마 <황금신부> 등장하는 남성들의 직업 및 역할을 분석해 본 결과, 휴학생인 김영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는 인물로 재현되었다. 젊은 층인 준우와 영민, 동구는 각각 전문 경영인이나 대기업 대표, 법조인이 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으며 중년층인 성일과 우남, 벽수도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술직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과거 베트남 여성과 사랑을 가정을 꾸린 경험이 있는 성일과 현재 국제결혼을 한 준우의 직업과 역할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하기 전, 이들은 모두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능력을 갖추지 못해 방황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둘 다 베트남 여성들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찾아 능력있고 성공한 이미지의 남성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처럼, 구세대와 신세대 한국 남성 모두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 역시 결혼 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 감을 알 수 있다. 단,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이 자신의 직업 및 역할을 찾기까지 여성 결혼이민자의 내조가 큰 역할을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3> 남성등장인물간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이름	나이	직업	역할
강준우	20대	무직 -> 회사원	직업을 갖지 못하다, 회사원이 되어 전도유망한 인재로 인정받으며 최고 경영인이 될 준비를 함.
김영민	20대	회사 경영진	가업을 이어 대기업을 이끌어갈 경영 수업을 받음.
김성일	50대	회사 대표	대기업을 운영.
강우남	50대	회사 대표	영세기업인 식품회사를 운영.
김영수	20대	휴학생	모델 지망생
허동구	20대	고시생	몇 년째 사법고시 준비를 함.
차벽수	40대	회사원	작은 식품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음.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과 국제결혼한 남성의 성격 및 특성 비교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	국제결혼한 남성	분석
구세대	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공적·사회적 역할 담당	국제결혼 전에는 방황 했지만 결혼 후, 자신의 역할을 찾음.	⇨구세대와 신세대 남성 모두,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전문직을 가졌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음. 국제결혼 남성 역시 결혼 후 주체적, 경제적 능력을 갖추.
신세대	미래에 전문직 인력이 되기 위해 준비함.	국제결혼 전에는 무직 이었으나 결혼 이후, 전문적이고 성공한 역할을 가짐.	

(3)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국제결혼을 한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직업 및 역할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는 가사일과 같은 사적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면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찾는 완벽한 여성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반면, 한국인 남편은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직업이나 역할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남성상으로 그려지다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내조로 인해 공적영역에서 전문직업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남성으로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이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시댁의 가업을 잇기 위해 선택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사분담은 아내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는 점 등에서 여전히 사적 영역은 여성이, 공적 영역은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4> 여성결혼이민자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직업 및 역할 비교분석

여성 결혼이민자 아내	한국인 남편	분석
가사 등 사적 역할을 담당하고, 시댁의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짐.	가사 등 사적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국제결혼 전에는 무직이었으나 결혼 이후에는 전문적이고 성공한 역할을 가짐.	⇒여성 결혼이민자는 가사 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 전통을 잇는 직업을 선택한 반면, 한국인 남편은 전문직, 공적영역 담당해 성역할이 고정화됨.

4) 계열체 분석결과 나타난 <황금신부>의 여성결혼이민자상

<황금신부>에 등장하는 남녀 인물들의 성격과 특성, 직업과 역할에 대한 계열체 분석 결과,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여성결혼이민자상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신세대와 구세대의 구별 없이 한국 여성들은 모두 욕심이나 집착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다. 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의지가 강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남성 인물들의 성격과 특성은 여성들만큼 세대별, 출신 국가별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의 경우, 결혼 전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불가능했던 어둡고 부정적인 성향이 여성 결혼이민자를 만나 다정다감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긍정적 성향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직업과 역할에 있어서 한국여성들은 과거, 사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여성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공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능력있고 성공한 여성일수록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부각되어 일하는 여성이 부정적으로 정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는 가사분담과 같은 사적영역을 원활히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찾는데 성공하고, 이 직업이 가정의 화목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넷째, 한국 남성들은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공적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만,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은 자신의 직업 및 역할을 찾기까지 여성 결혼이민자의 내조가 큰 역할을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여성 결혼이민자가 직업과 역할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특기나 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댁의 회사에 도움이 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게 되어도 가사분담은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어 성역할의 고정화와 가부장적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드라마 <황금신부>의 계열체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여성 결혼이민자상은 한국인 여성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과 이항대립을 이루어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드라마 속 한국 여성은 부정적인 여성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는 긍정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는 인물로, 여성 결혼이민자는 본래의 성격 및 특성 등을 살려 남편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종적 아내, 착한 며느리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여성관을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활발한 사회진출로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 등을 갖추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에 소홀하게 된 신세대 한국 여성들, 그리고 마치 ‘바보 온달’ 설화에서 평강 공주의 도움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온달을 닮은 듯한 한국인 남편들은, 이러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드라마 <황금신부>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여성상으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던 한국의 옛 여성상을 대체하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3. <황금신부> 신화분석

신화분석은 드라마 <황금신부>에 대한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의미들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드러난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신화를 비교함으로써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련한 기존 신화와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나타난 신화적 의미를 유사성과 차별성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여성 결혼이민자 신화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내도록 하겠다.

1) 드라마 <황금신부>와 기존 신화와의 유사성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 남성이 동남아 국가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고 하면, 농촌총각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지 못해 돈을 주고 타국에서 신부를 구해오는 이른바, 매매혼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비록 농촌총각이 아니라 해도, 저소득층이거나 부족한 면이 있는 남성 즉,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층인 남성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신화가 있는 것이다. 드라마 <황금신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화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직장에서 열리는 파티에 진주와 동행한 준우를 보고 동료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이러한 신화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한국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뭔가 문제가 있는 비주류층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는 이를 알고도 가난 때문에 한국 남성에게 시집오게 됐다는 의미의 신화를 도출하고 있다.

민이사 그 사람이 부인이야? 동남아 사람 같던데?

인경 맞아요. 베트남에서 왔대요.

민이사 뭐? 아니 강준우씨가 왜 그런 결혼을 해?

인경 사정이 좀 있었나봐요.

민이사 소문이 사실인가보지? 강준우씨 정신질환 있었다던데....

 그래서 돈주고 신부 쇼핑했구나?

드라마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인 진주는 한국에 처음 도착해, 이것저것 신기한 것이 많으며 좋아한다. 베트남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에서 본 남자 배우들과 자신의 남편을 비교하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에서 본 배우들의 행동을 따라해 보기도 한다. 특히, 공황에서 시댁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베트남 여성인 진주가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 이 때, 베트남에는 자전거가 많은데 한국에는 차가 더 많으며 좋아하고 자신도 높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으며 베트남 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보여 좋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을 동경한다는 신화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여성 결혼이민자와는 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루빨리 동화시켜야 한다는 신화 역시, 드라마 <황금신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주의 시댁 식구들은 한국에 처음 온 진주에게 촌스럽고 어릿어릿하다는 의미로 ‘수입 촌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진주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통합돼야 한다는 신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진주 와! 어머니, 여기가 서울이에요? 높은 아파트 너무

너무 많아요! 차도 너무너무 많아요! 베트남 자전거만큼 많아요! 와, 집 너무 너무 높아요.

 서울에 아파트 많다더니.....

 우리두 아파트 살아요? 그럼 너무너무 신나겠다, 와!

군자 (운전하며 작게) 저게 재미교포유? 오분만 같이 있으면

수입 촌닭인지 광고 안 해도 알겠수!
한숙 하나하나 가르쳐야죠.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신화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무지하고 어수룩하다는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도 그러한 신화가 발견되는데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몰라 주방에서 불을 내거나, 전기밥솥에서 “보온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놀라워하며 계속 버튼을 눌러보는 등의 행동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무지한 이미지가 도출된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무식한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장면들도 찾아볼 수 있다. 시어머니와 생전 처음 마트에 가본 여성 결혼이민자는 잠깐 혼자서 줄을 서서 계산할 순서를 기다리던 중, 사람들이 카드를 내자 계산이 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자신도 지갑 속에 있던 카드를 계산원에게 내민다. 그런데 그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구분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등 경제적 지식이 전무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창피해하는 시어머니를 통해 한국 여성들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는 아는 것이 없으며, 어수룩해 상황 판단도 느리다는 신화적 의미가 도출된다.

진주 뭐지 저건?(살피듯 보면)
계산원 십이만 삼천원입니다.
앞 손님 (카드 내민다)삼개월 할부요!
계산원 (카드로 긁고 처리한다.)
진주 (긴장해 지갑에서 급히 원가를 꺼낸다)
계산원 이건, 외국인 등록증인데요?
진주 네? 왜요?

계산원 이거 말고 카드 주세요.

주변사람들 (쿵쿵대며 웃고)

진주 네?? 카..... 카드요? 그 그게 뭐죠??

한숙 (막혀 달려와 창피해하며) 여기 있어요!

진주 어머니! 왜 제 것만 안돼요?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존 신화가 드라마 <황금신부>속에서도 부분적으로 발견됨을 알 수 있다. 기존 신화와 유사성을 지니는 드라마 속 신화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5> 기존 신화와 의 유사성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존 신화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나타난 신화적 의미의 유사성
-비주류층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무지하고 어수룩하다. -한국을 동경해왔다. -소통이 어려운 상대다. -한국 문화에 동화, 통합돼야 한다.	-무엇인가 문제있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무지하고 어수룩하다. -한국을 동경해왔다. -소통이 어려운 상대다. -한국 문화에 동화, 통합돼야 한다.

드라마 <황금신부>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무엇인가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가난한 출신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을 동경

해서 국제결혼을 했고, 말이나 행동이 무지하고 어수룩하고, 소통이 어려운 상대라서 하루빨리 한국 문화를 가르쳐 동화, 통합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신화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인보다 지적 능력, 문화적 이해도, 사회적 지위 등이 떨어지는 열등한 존재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상대적으로 잘 살고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들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한다는 자국문화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 드라마 <황금신부>와 기존 신화와의 차별성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련한 신화와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나타나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신화적 의미가 모두 유사한 것은 아니다. 드라마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일반적인 신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신화적 의미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제결혼에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 중 하나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시집 온 초기에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친절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 혹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결혼 업체들 중에는 결혼 후,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아내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감춰둬야 한다는 조언을 남편에게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신화가 더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진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으로 시집 온 초기, 남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한국인 남편은 진주에게 자신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 베트남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 진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손에 이끌려 공황까지 가게 되지만 끝내 베트남으로 떠나지 않고 다시 시댁

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꿈꾸던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아픈 남편을 치료해 주고 싶어 한국에 계속 남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베트남 여성은 ‘폭풍우 부는 날 언덕 위에 서있는 문을 열어놓은 집’처럼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여성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혼 생활을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강인함이 신화적 의미로 생산된다.

우남 진주야. 지금부터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라!

 왜 준우한테 다시 돌아온 게냐?

진주 처음엔 아저씨가 멋있어서 좋았어요.

 베트남 남자보다 훨씬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리고 아저씨 아픈 모습 다 봤어요. 그걸 보니까 아저씨

 곁에 남구 싶어요! 하루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저씨

 곁에서 열심히 돕고 싶어요!

 (중략)

한숙 네가 노력하다 안돼서 포기하고 가버리면 결혼 안 한만

 못해! 그건 너한테도 준우한테도 처만 남게 돼!

 너 정말로 진심으로 끝까지 같이 살 자신 있는거니?

 (중략)

진주 엄마가 말했어요. 베트남 사람은, 아니 베트남 여자는

 폭풍우 부는 날 언덕 위에 서있는 문을 열어놓은

 집이라고요! 문을 열어놓은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도 쓰러지지 않아요!

 폭풍이 불어와도 그냥 지나칠 뿐이에요! 나는 베트남

 여자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지금 마음 그대로 아저씨 곁에 있을 거예요.

 같이 살게 허락해주세요!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신화적 의미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강인함은 사실, 제목에서부터 예견된 것이다. 드라마의 제목인 ‘황금신부’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 대사에서 알 수 있다. 이 대사는 진주의 어머니가 진주를 한국으로 시집보내기 전, 진주에게 좋은 아내가 되라는 뜻으로 들려준 얘기다.

진주모 네 할머니 메콩강에서 평생을 허리 한번 못 펴구
농사를 지셨어. 모두들 그 덕에 굶어죽지 않고 살았지.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사람들은 황금에 땅이라고
불렀다! 너도 그 핏줄이라 분명 좋은 아내가 될 거야.
황금의 땅에서 온 황금신부!

여기서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황금신부’가 뜻하는 바는, 열심히 일하여 죽어있던 땅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만큼 강한 집념을 가진 이들이 바로 여성 결혼이민자라는 것과 이들이 한국에서도 그 생명력을 퍼뜨려 화목한 가정과 사회의 기틀을 만들 것이라는 신화적 의미이다.

선행연구 등을 통해 확인된 여성 결혼이민자 관련 신화 가운데, 드라마에서 표출되는 신화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편과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화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이 낯설고, 몸과 마음이 남편이나 시부모님 등 한국인보다 여러모로 동정의 대상이 되고,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 <황금신부>에서는 오히려 그 관계가 역전되어 있다. 남편 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도움으로 위기국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결혼 초기, 공황장애에 걸린 남편은 진주의 극진한 간호와 내조로 사회성을 점점 찾아가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용기도 갖는다. 남편의 치료가 끝난 다음, 진주는 이제 부도 위기에 빠진 시댁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공장에서 일손을 돕는 것을 넘어서, 식품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전통떡 제조법을 배우고 전통떡을 상품화하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영세 업체였던 시댁

의 회사를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키워낸다. 진주의 남편 준우는 이러한 진주의 존재가치를 아래와 같이 ‘물총새’에 빗대어 의미 짓고 있다. 이와 같이, 드라마 속에는 여성 결혼이민자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키워낼 수 있다는 모성 신화가 내포되어 있다.

준우 진주씨, 내가 어려서 읽은 책중에 물총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진주 물총새요?

준우 그새는 암수가 같이 바다를 날다 수놈이 지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암컷이 수컷을 업고 난대요.
진주씨를 볼 때마다 그 물총새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날 업구 다시 날 수 있게 해줬잖아요.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나타난 여성 결혼이민자의 신화적 의미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기존 신화와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는 항목이 있음을 발견했다. 드라마 속 신화적 의미와 기존 신화의 차별성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6> 기존 신화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존 신화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나타난 신화적 의미의 차별성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망갈 수 있다. -약하다. -남편이나 시댁 가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을 떠나지 않는다. -강하고 헌신적이다. -남편이나 시댁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

드라마를 통해서, 여성 결혼이민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혼을 깨지 않으며, 남편과 가정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강인하며,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신화적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 이러한 신화적 의미에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현모양처란 말은 어진 어머니와 좋은 아내를 일컫는다. 이는 예부터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상을 집약해주는 것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생계책임자이고, 가족의 대표자이며 지휘자인 남편을 잘 보조하고 받들어서 시부모 봉양 잘하고 시댁에 관심을 가지며 아이들을 잘 키워 공부 잘하게 만들고 집을 잘 정돈하고 정갈하게 밥상을 잘 차리며 남편의 바깥에서의 성공과 활동을 잘 내조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서는 결혼하더라도 매력적인 여성, 교양있는 여성이 되는 것도 자격요건으로 첨가된다(유애순, 2005). 이러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성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기대가 달라진다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적인 관계로 자연화 시키는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를 현모양처로 신비화시켜 재현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한국인들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드라마 <황금신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신화가 갖는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드러나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의미와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드러난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습에서 비주류층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가난하며, 무지하고 어수룩한데다 소통이 어려운 상대이며, 한국을 동경해 온 만큼 하루빨리 한국 문화를 가르쳐 동화, 통합시켜야 한다는 기존신화와 동일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와는 달리 능동적이고 강인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을 잘 가며, 나약하고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동정의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신화가 아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혼을 깨지 않고, 강하고 적극적이며, 남편이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오히려 보살핌을 주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신화가 드라마에서 표출되고 있다.

드라마 <황금신부>의 신화적 의미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신화와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살펴 본 결과, 서로 부합되는 면도 있고 대항적인 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문화권 내에는 하나의 신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적인 신화도 있고 대항적인 신화(counter-myth)도 존재한다. 특히, 피스크(Fiske, 1990/2001)는 뉴스, 다큐멘터리, 생활정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지배적인 신화를,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픽션물에서는 대항적인 신화를 보다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나 뉴스, 오락 프로그램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차별되게,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대항적인 신화가 발견되는 것은 픽션물이라는 장르적인 특성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여성 결혼이민자 기존 신화와
드라마 <황금신부>의 신화적 의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존 신화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나타난 여성 결혼이민자 신화적 의미
-비주류층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무지하고 어수룩하다. -한국을 동경해왔다. -소통이 어려운 상대다. -한국 문화에 동화, 통합돼야 한다.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망갈 수 있다. -약하다. -남편이나 시댁 가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문제있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무지하고 어수룩하다. -한국을 동경해왔다. -소통이 어려운 상대다. -한국 문화에 동화, 통합돼야 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을 떠나지 않는다. -강하고 헌신적이다. -남편이나 시댁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



지배적 신화	대항적 신화
•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 자국문화 우월주의 • 인종 차별주의	•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 성역할 고정화 •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그런데 그것이 지배적인 신화이든, 대항적인 신화이든 드라마를 통해 드러나는 신화들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함축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들을 통해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나타나는 지배적 신화에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자국문화 우월주의, 인종 차별주의 등이 내포되어 있어, 드라마가 가난한 나라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열등한 존재로 의미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항적 신화에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고정화,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 등이 내포되어 있어, 드라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가정 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완벽한 배우자상으로 신비화 시켜 의미 짓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반된 의미의 지배적 신화와 대항적 신화가 드라마 속에 공존한다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여기에 여성 결혼이민자의 역할 변화를 기대하는 한국 사회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배적인 신화는 보호받는 여성이지만, 대항적 신화는 슈퍼우먼 신화임이 드라마 <황금신부>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IV.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한국 사회에 새로 편입하게 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재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으며, 실제 여성 결혼이민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계층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미디어의 여러 범주 중에서도 그동안 논의가 활발치 못했던, 텔레비전 드라마의 여성 결혼이민자 재현에 관해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와 현실에서 만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동일시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재현하는 드라마가 생산하는 의미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논의 대상이 된 드라마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6개월간 방송된 SBS의 주말드라마 <황금신부>이다. 이 드라마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인공이 되어 극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만큼,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을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국제결혼과 여성 결혼이민자, 그리고 한국 가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방법인 통합체 분석, 계열체 분석을 사용했다. 그리고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함축적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밝혀내기 위해 신화 분석 방법을 채택했다.

먼저, 드라마 <황금신부>의 통합체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갈등구조와 해결구조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부, 친족, 세대, 또래 여성간의 갈등

등구조에서 갈등의 숨은 원인은 개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인 대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립임을 파악되었다. 특히, 한국 여성들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계적 차별구조가 나타났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족이나 아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됴됨이 보다, 출신 국가와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의 외적 조건이 우선시 된다. 결국 외적 조건이 부부나 가족, 사회내의 역학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한국사회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라는 조건은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약자의 위치임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갈등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 결혼이민자가 인내와 희생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릴 때에만 비로소 갈등이 해결구도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는 갈등을 만드는 또 하나의 주체인 남편이나 시댁 가족들, 구세대나 또래 여성들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가정과 사회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만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를 요구하는 모순적 사고가 드라마 속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황금신부>에 등장하는 남녀 인물들의 성격과 특성, 직업과 역할에 대한 계열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여성 결혼이민자상은 한국인 여성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과 이항대립을 이루어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드라마 속 한국 여성은 부정적인 여성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는 긍정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는 인물로, 여성 결혼이민자는 본래의 성격 및 특성 등을 살려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 결혼이민자가 직업과 역할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여성적 직업과 사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점, 부부가 함께 직업을 가진 후에도 가사분담은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는 점 등을 통해 성역할의 고정화와 가부장적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여성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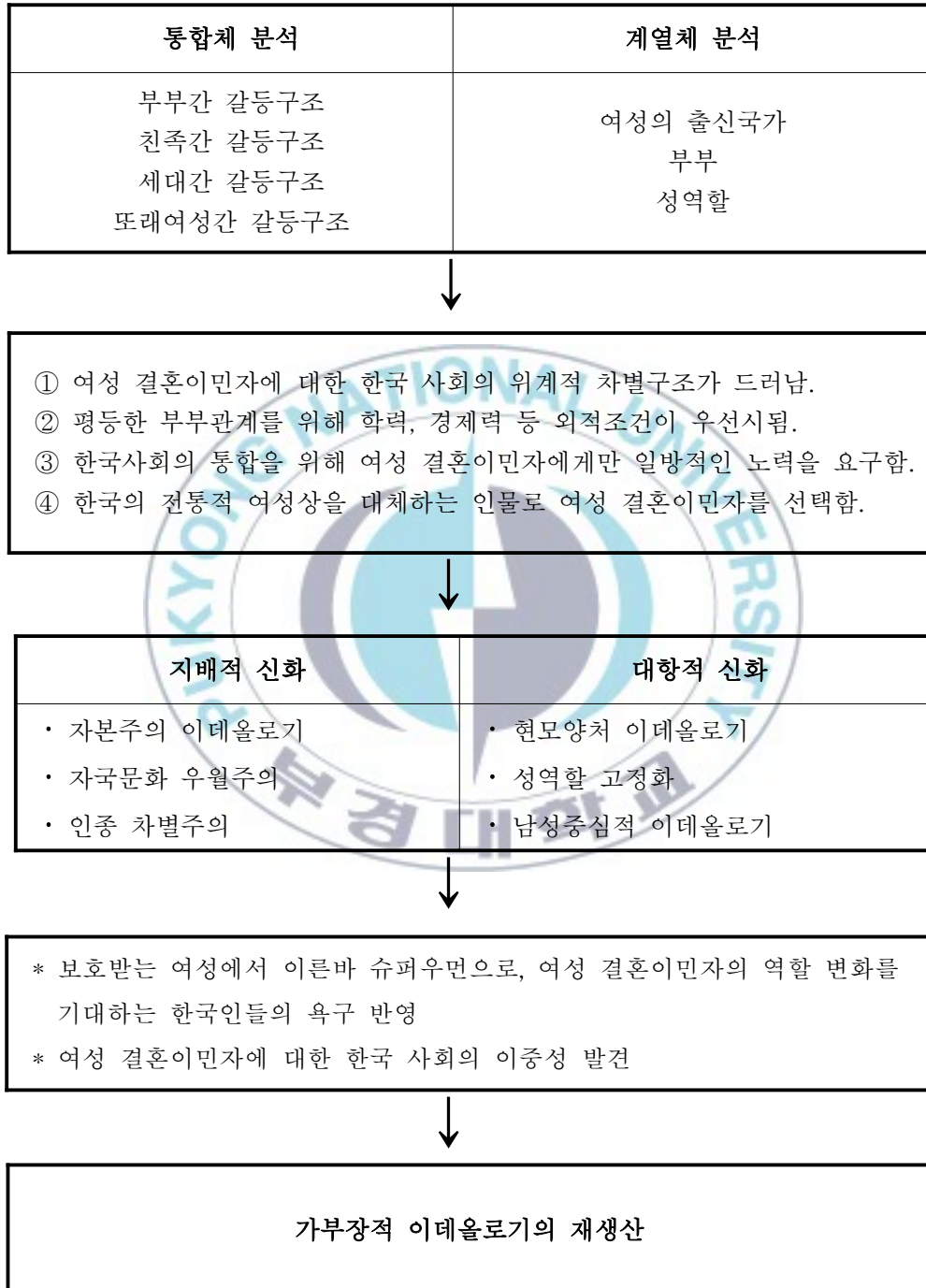
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미덕이던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을 대체하는 인물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화분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여성 결혼이민자에 관한 신화와 드라마에서 나타난 여성 결혼이민자의 숨은 의미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가 비주류층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가난하며, 무지하고 어수룩한데다 소통이 어려운 상대이며, 한국을 동경해온 만큼 하루빨리 한국 문화를 가르쳐 동화, 통합시켜야 한다는 신화적 의미는 선행연구의 신화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혼을 깨지 않고, 강하고 적극적이며, 남편이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도움을 준다는 신화적 의미는 기존 신화와 차별화된 것이었다.

기존신화와 유사한 신화적 의미들은 지배적인 신화라 부를 수 있다. 드라마 <황금신부>의 지배적 신화에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온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적 능력, 문화적 이해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급으로 분류하는 인종 차별주의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 드라마는 한국인들이 열등한 존재인 여성 결혼이민자를 가르치고 선도해야 한다는 자국문화 우월주의를 품고 있다.

반면, 기존신화와 차별된 신화적 의미들은 대항적인 신화라 할 수 있다. 드라마 <황금신부>의 대항적 신화에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가정 내 역할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성 역할 고정화와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 나아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는 한국인들의 욕망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드라마 속에 숨어있는 것이다.

<표 18>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드라마 <황금신부>의 통합체, 계열체, 신화분석을 통해 드러난 점은 다음과 같다. 드라마에서 재현한 여성 결혼이민자상은 한국인들의 차별의식이 낳은 열등한 존재에서, 한국인들의 판타지에 의해 만들어진 완벽한 여성으로 그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 만든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가 가정과 일을 모두 소화하는 여성, 이른바 ‘슈퍼우먼’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부부나 가정,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많은 부분을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은 사회 활동을 전담하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맡으며, 가족 내에서는 남성인 아버지가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을 가부장제라고 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성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기대가 달라진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내지 허위 의식이라 할 수 있다(백선기, 2001).

앞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 이후 드라마 속의 한국 여성상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가부장적이었던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드라마 속 성역할이 변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 <황금신부>에서 재현한 여성 결혼이민자상은 오히려 모성주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자연화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전통사회의 여성상을 더 이상 신세대 한국여성들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사회 구성원인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그 기대를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은 외부 세계 또는 현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화 시켜주며, 또 그 형상을 현실과 동일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습이 완벽한 아내나 며느리로 지나치게 이상화, 신비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역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정형화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드라마에서 재현하는 이들의 이미지가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감을 만들어, 한국인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더욱 ‘타자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드라마에서 재현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재조명되길 기대해 본다. 미디어가 여성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이 만든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이들 본연의 모습을 재현하려 애쓴다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논문은 텔레비전 드라마 속 여성 결혼이민자의 재현방식을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여성 결혼이민자 소재의 드라마에서도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뉴스나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문제화, 대상화, 주변화 시켜 ‘보호받는 여성’으로 재현하는데 반해, 드라마에서는 집안일과 바깥일을 모두 잘하는 신비화된 모습인, 소위 ‘슈퍼우먼’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들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 되는 것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연구를 마치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드라마라는 텍스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보다 객관화 시켜 살펴보려 노력했으나,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텔레비전 드라마는 서사구조나 대사, 등장인물 외에도 영상화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영상화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실제 드라마 <황금신부>를 시청한 수용자들에게, 이 드라마가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는 수용자 해독 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에 대한 더욱 치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 고찬희(1984). “텔레비전 드라마의 성차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용(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 김명혜·김훈순(1996). “여성이미지의 정치적 함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8권, 가을호.
- 김미정(2003). “TV 드라마에 나타난 성차별적 갈등구조와 이데올로기 :
MBC 드라마 <고백>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외(2006).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 김선남(1997). 『매스미디어와 여성』. 범우사.
- 김수정(2007).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봄철 정기학술대회.
- 김승희(2001). “텔레비전 드라마 <아줌마>의 갈등표출과 사회적 의미-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2000). “텔레비전 드라마의 남성성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응숙(1995). “텔레비전 드라마 <종합병원>의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1995년 봄, 제7호.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지은(2003). “TV드라마에 나타난 여성노인의 이미지 분석 : KBS2
주말드라마 <내사랑 누굴까>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호.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 박정순(1995). 『대중매체와 기호학』. 나남.
- 박혜진(2000). “TV 드라마 속에 나타난 여성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선기(1995).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 _____(1998). 『언론보도와 신화적 인식』.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2001).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설동훈(2005). 『국제결혼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송유재(1990). “여성과 매스미디어”. 『방송연구』 겨울호. 방송위원회.
- 송병찬(2006). “국제결혼에 대한 TV 시사 다큐멘터리의 ‘틀짓기’ : 1999년 이후 프레임 분석과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재연(1995). “TV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관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아(1998). “TV 드라마의 표출구조와 신화의 이중성”.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2006). “한국 남성과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 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혜(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

- 오명환(1994).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
- 유애순(2005). “TV드라마 담론 생산과정과 사회의미 형성에 관한 연구 : ‘혼전동거’관련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와 <애정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석호(1990). “TV 드라마에 나타난 갈등유형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태일(2004). “여성의 날씬한 몸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5-31.
- 윌정주(2000). “시트콤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와 그 신화의 의미구조 : SBS TV <순풍 산부인과>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승룡·김종현(2001). 『문화이론과 문화읽기』. 서광사.
- 원용진(2000). 『텔레비전 비평론』. 한울 아카데미.
- 이경숙(2006).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 : <러브 인 아시아>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 이동후(2006).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아시아”. 『방송문화연구』 18권, 1호.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권 2호.
- 이승진(2000). “멜로드라마에 나타난 성역할 파괴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애(2005).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여성의 정착지원방안.”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전북지역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 이은진(1991). “드라마를 통한 의미 생산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1993). “텔레비전 드라마의 분석적 비평에 관한 연구- MBC 주말연속극 <사랑이 뭐길래>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해순(1994). “TV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준영(1998), “<애인>, 30대, 1990년대”. 『애인 : TV 드라마, 문화
그리고 사회』. 한나래.
- 정현주(1998). “TV 토크쇼의 이데올로기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용출(2001). 『한국 가족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하종원(2003). “텔레비전 일일연속극에 나타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권, 2호.
- 한건수(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권, 1호.
- 황인성(1999).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민속지학적 관음주의와 타문화의
현실구성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텍스트』 1호.
- 한국여성개발원(2005, 12). 『이주 여성 연구 보고서』.
- Appadurai, A.(1996). *Modernity at large :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ldwin, Elaine(2000).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조애리외 역(2008).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한울아카데미.
- Barthes, Roland(1957). *Mythologies*.
정현 역(1995).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 현대미학사.
- Edgar, A. & Sdegwick, P.(2002). *Key concept in cultural theory*.
London: Routledge.
- Fiske, J .(1987). *Television culture*. London: Routledge.
- _____(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강태완·김선남 역(2001).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Gilman, S.(1985). *Difference and pathology, Ithaca*. NY: Cornell
Universty Press.
- Hall, S.(1997). The work of representation. In S. Hall (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 Saussure, F. (1974).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London : fontana.
- Storey, Jonh(1998).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n introduction*.
박만준 역(2002). 『대중문화와 문화연구』 . 경문사.
- Turner, Graeme(1992). *British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김연중 역(1999). 『문화 연구 입문』 . 한나래.

